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 및 재무행동 분석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혜 준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 및 재무행동 분석

차 경 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혜 준


인 준 서

박혜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이광욱 

심사위원 양수진 

심사위원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의 연령 집단별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20~24세 72.0%, 25~29세 64.8%, 30~34세 57.4%, 35~39세 50.3%로, 각 연령대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한 미혼남녀의 비율보다 높았다(통계청, 2015). 또한 부모가 부양하는 성인자녀의 86.9%가 미혼이고, 이 중 취업자의 비율은 58.9%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상태인 미혼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김유경, 2018).

선행연구는 이러한 성인자녀를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활용해 명명하였고,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독립하지 않는 성인자녀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고, 고용불안, 저임금, 주거비용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논의하며, 이들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주로 모색해 왔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경우,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캥거루족이 된 집단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다양한 교류 특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부모와 어떠한 사회·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그들의 재무상태,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독립계획 및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부모와 동거 중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20대와 30대 성인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t-test,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30.25세이며, 77.6%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있으며, 독립 예상 평균 연령은 32.93세로 주로 30대에 독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67.2%가 동거 중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현금)를 지급하는 비율은 60.3%,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등을 지급하는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산부채 상태와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자산 중 예·적금의 보유 비율이 92.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산보유액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부채는 신용카드 부채 보유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부채액은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각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계수지표 83.2%, 저축성향지표 35.8%, 금융자산비중지표 86.1%, 부채부담지표 77.6%로, 저축성향지표 가이드라인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그만큼 자신의 지출액과 저축 및 투자액의 경로 및 현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유무에 따라 재무상태(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재무건전성),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을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예·적금 보유액, 금융자산비중지표 값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과 기타 부채액이 많았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수준이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 금융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낮은 신용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납부액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는 등의 재무행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은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대출 및 할부 거래 등의 재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의 경우, 30대가 20대에 비해 자산부채액(예·적금, 기타 자산보유액, 주택마련 대출액)이 대부분 유의하게 높았고, 20대가 30대에 비해 금융자산비중지표 값이 높았다. 이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취업 시장에 오래 있었던 것만큼 금융자산 외에 비금융자산에도 투자하는 등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립 예상 연령 중 30대의 비중(70.2%)이 높은 것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의 경제적, 주거적 자립 등을 위한 30대의 주택마련 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 소득지출(월평균 소득, 월평균 저축투자액), 자산부채액(예·적금, 펀드, 주식·채권·파생상품보유액, 학자금 대출액)이 대부분 유의하게 높았으며,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 타 직업군에 비해 전문·관리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소득지출(월평균 소득, 월평균 저축투자액), 자산(예·적금 보유액), 재무건전성(저축성향지표) 수준이 대부분 유의하게 높았으며,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독립계획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평소 자신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며 시기에 맞는 재무목표를 갖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재무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저축투자액, 예·적금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고,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위험관리와 보험 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소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재무행동을 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재산상의 위험 등에 대비해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재무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경우, 총자산,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많은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와 자녀가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계획에 의해 사무직과 자영업의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즉, 사무직과 자영업자의 재무행동 수준은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이들의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생활비 지급 여부에 의해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 재무행동 수준은 생활비 지급 집단과 미지급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20-30대 미혼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부모와의 교류 특성, 재무상태와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행동, 나아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 자립 준비도와 재무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 5
 - 1) 경제적 독립과 쉐어러족 5
 - 2) 쉐어러족과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범위 8
- 2.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현황 및 관련 연구 10
 - 1)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현황 10
 - 2)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관련 선행연구 12
- 3.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15
 - 1) 재무상태와 재무비율의 개념 15
 - 2)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개념 22
 - 3) 재무행동 관련 선행 변수 25
- 4. 20-30대의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특성 26
 - 1) 20-30대의 재무상태 26
 - 2) 20-30대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행동 28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31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33
3. 측정도구의 구성	33
4. 분석방법	41

Ⅳ. 연구결과

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	44
1)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4
2) 자녀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46
3) 자녀와 부모의 현금 교류 특성	48
2.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 비교	50
1)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및 재무건전성	50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	54
3)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66
4)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	67
3.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 행동 비교	68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	68
2)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74
3)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	75
4.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1) 독립계획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78
2)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8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85
2. 제언 90

참고문헌

ABSTRACT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캥거루족 및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범위	9
<표 2> 부모동거 성인자녀 관련 선행연구	13
<표 3> 가계수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18
<표 4> 저축성향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19
<표 5> 금융자산비중지표 관련 재무비율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	20
<표 6> 장기부채부담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21
<표 7> 본 연구의 재무비율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22
<표 8> 소득지출, 자산부채의 구분 및 유형	36
<표 9>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37
<표 10> 재무적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	39
<표 11> 재무행동 측정 문항	40
<표 12>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5
<표 13> 자녀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7
<표 14> 자녀-부모 간 현금 교류 여부	48
<표 15> 자녀와 부모의 생활비(현금) 교류 특성	50
<표 16> 자녀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51
<표 17> 자녀의 재무건전성(재무비율) 평가	54
<표 1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지출 비교	58
<표 1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보유액 비교	59
<표 2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보유액 비교	61
<표 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비교	64

<표 22>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비율 비교 ..	66
<표 23>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비율 비교 ..	67
<표 24>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행동	69
<표 2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	72
<표 26>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74
<표 27>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	75
<표 28>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8
<표 29>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	80
<표 30>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조 절효과	8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썬거루족이라는 용어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썬거루족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미혼자녀를 일컫는다.(최연실, 2014; 김은정, 2015; 강유진, 2016; 심재휘 외, 2018).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는 썬거루족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 집단별 미혼 남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20~24세 72.0%, 25~29세 64.8%, 30~34세 57.4%, 35~39세 50.3%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령 집단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한 미혼 남녀의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30대에 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이상림,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13; 통계청, 2010, 2015). 또한 김유경(2018)에 따르면,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86.9%가 미혼이고, 이 중 취업자의 비율은 58.9%, 비취업자는 28%, 학생은 13.1%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취업 상태인 미혼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썬거루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주로 사용하였다(김인혜·여정성, 2020; 김필숙·이윤석, 2019; 김유경, 2018; 박주영·유소이, 2018; 성미애 외, 2017; 오호영, 2017; 강유진, 2016; 최연실, 2014;

이영분 외, 2011).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동거라는 단어 안에 생활양식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동거를 하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다양한 교류 특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독립하지 않는 성인자녀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고, 고용불안, 저임금, 주거비용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논의하며, 이들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심재휘 외, 2018; 오호영, 2015; 최형아·이화영, 2013).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위 썬더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증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교류도 다양화되고 있다(김유경, 2018).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경우,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썬더족이 된 집단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20-30대는 생애주기 단계상 사회초년기 또는 신혼기에 해당한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생애 재무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과감하게 소득의 50%를 저축하여 종잣돈을 만들고, 단기, 장기의 재무목표를 설정하여 저축과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생애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재무상태를 예측하며, 재무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경우, 독립적인 가계를 형성한 집단에 비해 자유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자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모와의 사회·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재무상태, 재무행동, 나아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20-30대 미혼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부모와의 교류 특성,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부모와 어떠한 사회·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재무상태, 재무효능감 및 재무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그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류는 향후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살펴보고, 경제적 교류는 자녀와 부모 간의 현금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가 부모와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재무상태는 소득지출, 자산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주요 재무비율을 통해 재무건

전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은 향후 독립계획 여부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이 부모와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향후 독립계획 여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재무역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무행동은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독립계획 및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무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전형적인 갱거루족과 달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층 경제적 자립의 현 주소를 조명하는데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 준비도와 재무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

1) 경제적 독립과 쉐거루족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 혹은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주거의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경제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호 외, 2017). 광의의 개념으로서 독립과 자립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독립 및 자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독립 및 자립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는 편이다(심재휘 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은 정규 학교 교육을 모두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오호영, 2017).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이나 결혼을 하며 독립이 이뤄졌지만, 오늘날은 청년층의 교육연한 증가, 취업난, 만혼 경향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평균 5~10년 가량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Furstenberg, 2013; 강유진, 2016, 심재휘 외, 2018). 뿐만 아니라 저금리, 자산 가격 및 주거비용 상승, 고용시장 불안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성인자녀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호영, 2017).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독립이 성인기로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조성호 외 2017; 이승렬, 2015). 오호영(2017)

은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 시기가 지연될수록 부모 의존 성향이 심화되어 성인자녀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노력을 통해 사회에 편입되는 경로를 포기하고, 비교적 손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청장년층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우려하였다.

경제적 독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썬거루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썬거루족이라 함은 성인기에 진입하여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미혼자들을 의미한다(최연실, 2014; 강유진, 2016).

2000년대 이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이 꾸준히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썬거루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썬거루족의 실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 및 분석하고, 독신성인, 저혼인, 미혼남녀, 경제적 의존과 같은 연구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성인자녀가 경제적 독립 혹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 부모 동거 성인자녀, 부모의존 독신성인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필숙·이윤석, 2019 박주영·유소이, 2018; 오호영, 2017; 강유진, 2016; 최연실, 2014; 이영분 외, 2011).

썬거루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자립 여부이다. 심재휘 외(2018)는 썬거루족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주거를 함께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청년층이 비정규직, 인턴 등과 같은 저임금, 고용불안 등에 직면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되면서(오호영, 2017), 썬거루족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열악한 사정을 반영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에 이들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썬거루족은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를 곤란하게 만

들어 부모, 자녀 모두 궁핍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캥거루족의 부모의존 성향은 자칫 청년층의 노동시장 편입을 저해하고 숙련 축적 기회를 제한해 국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오호영, 2015). 이처럼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캥거루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점차 범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통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업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2015. 05)가 성인남녀 375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캥거루족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7.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캥거루족을 정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독립 여부’를 꼽았고,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의 68.2%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범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rstenberg, 2013).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i & Liu, 2006; Ermisch & Di Salvo, 1997; Haurin et al., 1997; 오호영, 2017).

캥거루족에서 탈피하는 시점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심재휘 외(2018)에 따르면, 결혼과 취업이 캥거루족의 자립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거주지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도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rg, 2007; Silva, 2012).

20-34세 청년 중 약 57%가 캥거루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자보다는 대졸자일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오호영, 2017). 거주지 특성도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 이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6; Mulder et al., 2006; Raymo & Ono, 2007; Yu & Kuo, 2016). 이는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혼 성인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재경, 2019)

2) 썬거루족과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범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표현하는 용어로 ‘썬거루족’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이슈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썬거루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구분한

썬거루족의 범위는 대학 졸업 이후인 25세 이상부터 40세 전후이며, 미혼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이다(강유진, 2016; 최연실, 2014; 최형아·이화영, 2013).

한편 김성하 외(2016)는 썬거루족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의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오호영(2015)은 성인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를 썬거루족으로 보았다.

오호영(2015)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용돈

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높아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쉐거루족을 세분화하였다. 즉,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쉐거루족 I형’, 부모와 동거 중이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자(126만원 이하)라면 주거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을 ‘쉐거루족 II형’, 주거 독립은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는 ‘쉐거루족 III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부모와 동거 중이지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평균 소득(126만원 초과)이 있다면 쉐거루족에서 제외하였다.

최형아·이화영(2013)은 미혼 성인자녀 가운데 독립 시기와 부모에의 경제적 의존 여부를 고려하여 쉐거루족을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의 경제적 의존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미취업자와 취업자 중에서도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상을 선별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1인당 월평균 생활비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독립 시기는 초혼 연령시기 이후인 만 30세 이상을 자립의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쉐거루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인 만 25세~29세도 향후 5년 후 쉐거루족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어 넓은 범위의 ‘확대 쉐거루족’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쉐거루족 및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정의, 구분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쉐거루족 및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범위

저자 (년도)	범위	
김인혜· 여정성 (2020)	쉐거루족	분가하여 독립할 가능성이 높은 초혼연령(통계청 2018 기준, 30세)을 기준으로 30~40세이며,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의 자녀	
장유진 (2016)	부모동거 성인자녀	25세~40세 사이의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중, 성인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김성하 외 (2016)	신캥거루족	만 25세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세대를 총칭	
오호영 (2015; 2017)	캥거루족	20~30세 이하 성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녀 (캥거루족의 유형은 본문 내용 참고)	캥거루족 I 형 캥거루족 II 형 캥거루족 III 형
최형아· 이화영 (2013)	캥거루족	미혼자녀(만 25세~44세 대상) 중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자립이 힘든 경우(당해연도 1인당 월평균 생활비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초혼 연령 이후인 만 30세 이상의 시기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이영분 외 (2011)	부모의존 독신성인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① 만 25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② 현재 학업 중이지 않은 자 ③ 결혼하지 않은 자 ④ 현재 가구의 경제적 주 부양자인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	

2.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현황 및 관련 연구

1) 부모동거 성인자녀의 현황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청년의 연령 집단별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20~24세 72.0%, 25~29세 64.8%, 30~34세 57.4%, 35~39세 50.3%로, 각 연령대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한 미혼남녀의 비율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30대에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이상림,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13; 통계청, 2010, 2015). 또한 김유경(2018)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86.9%가 미혼이고, 이 중 취업자의 비율은 58.9%, 비취업자는 28%, 학생은 13.1%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상태인 미혼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규모가 증가하고 동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녀와 부모의 동반 빈곤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성인자녀의 독립 시기가 지연될수록 부모의존 성향이 심화돼 사회진출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되었다(오호영, 2015; 2017).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었는데, 주된 원인으로서는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의 증가, 만혼,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 거주 주택마련 비용의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상림, 2020; 김필숙·이윤석, 2019; 심재휘 외, 2018; 김유경, 2018; 박주영·유소이, 2017; 성미애 외, 2017; 오호영, 2017; 조성호 외, 2017; 최형아·이화영, 2013; 이영분 외, 2011).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거 독립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뒤로 미루는 성인자녀가 증가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성인기 지체 현상은 부모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가 남게 되는 가족축소기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노후준비 등 재무설계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연실(2014), 박주영·유소이(2017, 2018), 김진영·이현정(2020)은 부모와 동거하며 의존하는 성인자녀

들은 부모에게 기초적 소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계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오호영(2015; 2017)은 연금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미미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곤란하게 만들어 부모와 자녀 모두 궁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신한은행(2018)에서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성인자녀 중 45.6%가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비율이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동거를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에 비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머니S, 2018). 또한 김유경(2018)에 따르면 부모의 성인자녀 부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은 부양 비용 부담(39.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대상자의 3분의 1 정도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2) 부모동거 성인자녀 관련 선행연구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속한 가구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는데, 주로 독립 시기, 취업 여부, 경제적 의존여부 등의 경제적 변수를 활용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세분화하고 그들의 규모와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였다(박주영·유소이, 2017; 오호영, 2015; 최형아·이화영, 2013). 이 외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독립을 촉진하는 요

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심재휘 외, 2018),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자원 이전 및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강유진, 2016; 김영순·고선강, 2014; 이윤정·고선강 2011)가 진행되었다.

또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김인혜·여정성, 2020; 김유경, 2018; 박주영·유소이, 2018; 성미애 외, 2017, 이영분 외, 2011),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자녀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필숙·이윤석, 2019) 등이 진행되었다.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과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부모동거 성인자녀 관련 선행연구

저자 (년도)	조사대상	내용
김인혜· 여정성 (2020)	부모와 동거 중인 30-40세 사 이의 미혼 성인자녀	캥거루족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생활 만족도를 비교·분석함
김필숙· 이윤석 (2019)	미혼 성인자녀 중 여성	미혼 여성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취업 여부에 따른 영향의 차이 를 살펴봄
김유경 (2018)	도움이 필요한 25세 이상의 성인자녀에게 동거 또는 비동 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 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및 도 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부모 가구	성인자녀의 부양에 영향을 주는 가 족사회의 변화 원인 및 현상 규명, 성인자녀의 부양 특성과 정책 욕구 등을 진단함
박주영· 유소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의 나이가 26세 이상 40세 미만	부모의존 독신성인을 자녀로 둔 가 구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 정도에

(2018)	인 가계 중 가구주의 나이가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중 은퇴를 하지 않은 가계의 가구주	따라 가계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 파악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
심재희 외 (2018)	2000년 및 2008년 당시 만 25세 청년층(본 연구는 한국 노동패널조사 3~19차 데이터를 사용)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는 상황)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성미애 외 (2017)	부모세대는 결혼한 적이 없는 만 35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본인은 만 75세 미만인 남녀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의존 여부(4개 집단)를 중심으로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를 집단별로 분석함
오호영 (2017)	20~34세 이하 성인 쉐어러족 ¹⁾	쉐어러족의 현황 및 규모 등의 실태 분석, 쉐어러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함
장유진 (2016)	25세-40세 사이의 미혼이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성인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부모의존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 간 세대 관계 특성을 살피기 위해 이들의 세대 간 자원교환 유형과 가족 부양관의 양상, 세대 간 관계의 질 수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최연실 (2014)	취직을 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대 후반에서 40세 미만의 성인자녀(미혼, 기혼 모두 포함)	성인자녀의 부모동거 개념 및 현황 분석, 해당 주제의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을 탐색함
이만우·김시광·김란영 (2012)	조사차수 중 2차년도(1999년)에 미혼이었다가 11차(2008년)에 기혼이 된 가구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만혼의 연관성을 분석함

이영분 외 (2011)	부모의존 독신성인의 조건을 갖춘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구주가 대상)	부모의존 독신성인 ²⁾ 가구의 규모, 해당 가구의 부모와 자녀의 특성, 동거관련 생활실태 및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등을 분석함
-----------------	---	--

<표 2>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독립 및 자립,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혼 성인자녀나 미혼 성인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부모와 동거 중인 성인자녀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다수이며,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여부, 경제적 의존여부 혹은 경제적 자립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성미애 외, 2017; 심재휘 외, 2018).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호영(2015; 2017)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전통적 유형에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유형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캥거루족)를 정의한 바 있으나, 기혼 성인자녀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 범위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1) 재무상태와 재무비율의 개념

재무상태(Financial Status)란 특정 시점에서의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적

1) <표 1> 내 오호영(2017)의 캥거루족 조작적 정의 참고

2) <표 1> 내 이영분 외(2011)의 부모의존 독신성인 조작적 정의 참고

상태를 뜻하며, 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월평균 소득, 소비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가계재무지표와 더불어 위험·유동자산 보유 비중, 투자·안전자산의 보유 비중 등 다양한 측정법이 있다(여운봉·박현숙, 2015). Pereire & Coelho(2013)는 재무상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계 소득을 우선적으로 꼽았는데, 소득은 주관적 복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면 해당 가계의 주관적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계를 소득수준으로 구분해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다(주소현 외 2016). 이 외에도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다른 지표는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이 있으며(Greenwood & Wolff, 1988; Radner 1989; Hurd 1990), 소득과 순자산 중 어느 한 가지 측정항목으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측정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도 있다(Crystal & Shea 1990; Radner 1990).

가계의 재무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수리적 계산 방법인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사용한다(Mason & Griffith 1988; Garman & Fogue 1991; Zaimah et al., 2013). 재무비율은 기존에 기업의 재무평가를 위해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재무비율을 활용해 기업의 수익성 및 유동성 분석 등을 통해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처럼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재무비율을 Griffith(1985)가 개인재무상태 평가에 사용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였고, Mason & Griffith(1988)는 가계 재무상태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재무비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양세정 외, 2013). 이 같은 가계의 재무비율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재무적 요소를 활용해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제공한다(최현자 외, 2003).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요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무비율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더 효율적이다(김민정 외, 2007).

재무비율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한국 가계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상태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현자 외(2003)의 연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을 조사한 양세정·정지영(2010), 한국 가계의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양세정 외(2013), 소득 계층별로 가계의 재무특성을 비교한 주소현 외(2016) 등이 있다.

재무설계와 관련해 주로 사용된 재무비율은 크게 현금흐름 측면과 자산부채 상태 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현금흐름 측면의 지표는 가계수지 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가 있으며, 자산부채 상태 측면의 지표는 부채부담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가 있다(양세정 외, 2013).

가계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재무비율 중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의 재무비율(① 가계수지지표, ② 저축성향지표, ③ 금융자산비중지표, ④ 장기부채부담지표)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재무비율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계수지지표

가계수지지표는 가계생활의 안정적 운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계의 소비성향과 적자생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주로 월평균가계소득 대비 월평균생활비로 계산한다(양세정 외, 2013; 주소현 외, 2016). 가계수지지표는 재무상태를 평가한 후에 각 가계가 스스로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관리 실행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계수지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가계수지지표의 가이드라인 준거기준은 과거 1.0미만이 대부분이었지만, 학계와 실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국가계의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양세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성장성을 고려해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을 0.7이하로 제안하였다. 또한 양세정 외(2013)는 가계수지지표 가이드라인을 연령대별로 20대 50%, 30대 70%, 40대 80%, 50대 90%, 65세 이상은 95%이하를 제안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계수지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재무비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총지출/총소득	1.0미만(양정선, 1997)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미만(최현자 외, 2003)
		0.6미만(양세정·정지영 2010)
0.7이하(양세정 외, 2013)		

출처: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2016)을
참고하여 구성

② 저축성향지표

저축성향지표는 가계의 성장성 평가지표 중 하나로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처분소득 중 총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었다(최현자 외, 2003). 저축성향지표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대부분이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 외 2003), 양세정·정지영(2010)과 양세정 외(2013)은 30% 이상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축성향지표의 수치는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지나치게 수치가 높으면 현재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최현자 외, 2003). 저축성향지표는 현금흐름측면에서 가계의 저축성향을 파악하는 지표이기도 하며, 총소득 대비 총저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총소득은 경상소득의 연간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뜻하고, 총저축은 수시입출

금식, 적립식, 예치식 등의 안전금융 저축, 펀드 등의 금융투자저축액을 포함한다. 양세정 외(2013)는 저축성향지표 가이드라인을 연령대별로 20대 50%, 30대 30%, 40대 20%, 50대 10%, 65세 이상은 5% 이상을 제안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저축성향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재무비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0.1이상(최윤지·최현자, 1998)
		0.1이상(안승철·김년희, 2001)
		0.1이상(최현자 외, 2003)
		0.3이상(양세정·정지영, 2010)
		0.3이상(양세정 외, 2013)
	금융투자저축/총저축	0.3이상(양세정 외, 2013)
	총저축/총소득	0.3이상(양세정 외, 2013)

출처: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2016)을
참고하여 구성

③ 금융자산비중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는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 가계의 저축과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다. 총자산은 저축액을 포함한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실물자산의 총액으로 측정할 수 있고, 금융자산은 수시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저축, 저축성 보험 등과 같은 안전금융자산의 현재 가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자산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측정할 수 있다(양세정 외, 2013). 금융자산비중지표는 가계의 장기적 성장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 선진화된 가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표이다(양세정 외, 2013; 주소현 외, 2016).

최현자 외(2003), 양세정 외(2013)는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동성지표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동성지표의 준거기준으로 최현자 외(2003)는 0.1을 제시하였고, 총자산 대신 순자산을 이용한 양정선(1997)은 0.25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자산비중지표를 투자성향지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Lytton et al, 2006; 최현자 외, 2003; 양세정·정지영, 2010).

이처럼 금융자산비중지표와 관련성이 있는 재무비율은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가 있으며, 이들의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금융자산비중지표 관련 재무비율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재무비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금융자산 비중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4이상(양세정 외, 2013)
유동성지표	유동자산/순자산	0.25이상(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금융자산/총자산	0.1이상(최현자 외, 2003)
투자성향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4이상(양세정 외, 2013)
	실물자산/총자산	0.9미만(최현자 외, 2003)
		0.6미만(양세정·정지영, 2010)
	금융투자자산/총자산	0.05~0.1(최현자 외, 2003)
(금융투자자산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총자산	0.2~0.25(양세정·정지영, 2010)	

출처: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2016)을 참고하여 구성

④ 장기부채부담지표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단기부채부담지표는 현금흐름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주로 가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다. 해당 지표를 통해 부채상환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파악하고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양세정 외, 2016).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율로 측정된다. 장기부채부담지표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준거기준과 관련한 선행연구(최현자 외, 2003; 양세정·정지영, 2010)에 따라 0.8~0.5 미만이 제시되었고, Lytton et al(2006)와 양세정 외(2013)은 0.4 이하를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장기부채부담지표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재무비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장기부채부담지표 (자산부채측면)	총부채/총자산	0.1이하(양정선, 1997)
		0.8미만(최현자 외, 2003)
		0.5미만(양세정·정지영, 2010)
		0.4이하(Lytton et al, 2006)
		0.4이하(양세정 외, 2013)

출처: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2016)을
참고하여 구성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인 가계수지지표, 장기부채부담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 저축성향지표의 측정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은 아

래 <표 7>과 같다.

<표 7> 본 연구의 재무비율 측정방법 및 가이드라인

재무비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지출/월평균소득	0.7이하
저축성향지표	총저축/총소득	0.3이상
금융자산비중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4이상
장기부채부담지표	총부채/총자산	0.4이하

출처: 양세정·주소현·차경옥·김민정(2013), 주소현·차경옥·김민정·김소연(2016)을

참고하여 구성

2)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인지이론을 정립한 Bandura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는 특정한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되었으며(Bandura 1977; 2001),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 자기효능감 신념(Self-efficacy Belief) 등의 용어로 대체되었다(정순돌 외, 2018 재인용)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해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여 높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 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필수, 2014).

Bandura(1977)는 개인의 성취 수준에 가장 강력한 결정 변인은 자기효능감이 라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선택, 행동 수행을 위한 노력과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Bandura, 1977; 2001). Bandura(1986)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과업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지각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무적 자기효능감(Financial Self-Efficacy)이란, 개인의 재무상황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Fox & Barholomae, 2008) 또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자신감 등을 말한다(Weaver et al, 2009).

Lown(2011)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Prochaska et al(1994)이 제시한 행동변화 이론을 기반으로 총 6개 문항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개인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해당 척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개인 재무행동 및 재무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돈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Engleberg, 2007)에 따르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저축, 재무에 대한 태도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소비자 신용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Tokunga, 1993), 은퇴투자행동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Dulebohn & Murray, 2007),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Xiao et al, 2011, Vosloo et al, 2014),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필수 외, 2015) 등이 있다.

재무행동이란,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해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김효정, 2000; 정운영 외, 2002; 차경욱, 2007; 이지혜·주소현, 2013). 재무행동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부터, 장단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한 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차경욱, 2007).

재무행동의 영역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세분화되었는데, Poter & Garman(1993)

은 현금관리, 신용관리, 자산축적, 위험관리, 은퇴와 상속, 일반적 재무관리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Scannell(1990)은 소비계획, 가계부 기록, 예산과 실제 비용과의 비교, 순자산 평가 등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으로 재무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재무행동의 측정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세분화한 바와 같이 여러 영역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운영 외, 2002).

손지연(2017)은 재무행동을 소비자가 수행하는 재무적 자원의 관리 과정으로 인식하여 이와 관련된 하위영역으로 소득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신용 및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위험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개인 재무관리의 하위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실행 수준을 재무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재무행동은 그 정의를 어떻게 살펴보느냐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재정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영역별로 재무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

재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을 빼놓을 수 없다. 재무관리역량은 그 구성요인인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재무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은 재무관리역량이 발현되는 지표인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김정현·최현자, 2012). 김정현(2011)은 재무관리역량을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적절히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정의내렸다. 이를 토대로 재무관리역량 척도가 개발되었고, 세부적으로는 ① 수입과 지출관리, ② 신용과 부채관리, ③ 저축과 투자, ④ 위험관리와 보험, ⑤ 노후설계, ⑥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으로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김정현·최현자, 2012).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을 개인에게 적합한 재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척도를 개발한 김정현·최현자(2011)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3) 재무행동 관련 선행 변수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월평균 가계 생활비, 소득, 월평균 저축액, 교육수준, 의사소통 빈도, 재무관리 지식수준, 재무관리 경험, 소비자교육 등이 있으며, 경제적 기대감, 화폐에 대한 태도와 같은 주관적 특성도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이선형·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1998; 김효정, 2000; 이지혜·주소현, 2013; 김아름, 2016). 이 중에서도 월평균 가계 생활비, 소득, 월평균저축액, 자산, 교육수준, 의사소통 빈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경험, 소비자교육, 경제적 기대감은 재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연령, 물가 불안 등의 변수는 부(-)의 영향을 주었다.

소득 계층별 재무관리태도 및 행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주소현 외(2016)의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부채의 규모,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보유 현황, 가계 소득구조와 지출구조 등이 다르게 나타난 선행연구, 가계소득이 높고, 용돈의 액수가 큰 대학생 집단일수록 주식, 펀드 등의 투자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차경욱, 2007) 등이 있다.

Titus et al(1989)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계획을 잘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재무행동에 관해 살펴본 강혜경(1990)과 김은양(1994)의 경우 남편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사무직, 기술직,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 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혔

다. 이 외에도 교육수준과 재무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Beutler & Mason, 1987; Titus et al., 1989)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산을 합리적이고 정기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자(2003)에 의하면 경제적 자립 의지도 재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배미경(2007)은 30세 미만의 가구는 재무행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탐색한 김정현·최현자(2012)에 따르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의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 및 투자를 많이 할수록, 가계수지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 저축성향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할수록,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수지지표 기준을 충족할수록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4. 20-30대의 재무상태와 재무행동 특성

1) 20-30대의 재무상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에코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행태와 자산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와 에코 세대(1979~1992년생, 현재 30대 포함)의 금융자산 투자 방법을 주제로 한 이현정(2015)에 따르면, 에코 세대는 금융자산 투자 방법으로 이율이 낮아도 원금을 보존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시중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선호하였다. 또한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윤종인(2016)은 전반적으로 30대의 저축률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연구대상

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은퇴 이후 미래를 위한 재무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본 미국저축교육위원회(ASEC, 2008)에 따르면, Y세대(1980~1988)의 미래에 대한 저축 현황을 살펴볼 때, 저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를 위한 저축 행동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에코 세대는 연구자마다 그 나이를 조금씩 다르게 하였지만, 평균적으로 1979년생부터 1994년생 출생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가계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 이은희 외(2015)에서 에코 세대의 평균 자산 총액은 약 1억 9천만원 정도였으며, 이들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 부채를 사용하기에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코 세대는 여가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수준이 높은 반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순돌 외(2018)는 세대별 가계재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보유 및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M세대(1988년 이후 출생자, 현재 20-30대 포함)중 5,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비중은 11.3%이며, 금융자산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29.8%, 1,000만원 미만은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한다. 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는 N세대가 12.7%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세대별 금융상품 투자 행태를 살펴본 결과, M세대와 N세대 모두 보장성 보험을 보유하는 비중이 각각 60.9%, 91.5%로 나타났으며, 예적금 상품의 보유 비중은 N세대에서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1988년~1998년 출생자, 현재 20-30대 포함)의 금융상품 보유행동을 살펴본 주소현 외(2020)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약 90%가 미혼이었으며, 가계소득의 경우 200-400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다. 가

계 포트폴리오 구성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배미경(2006)에 의하면, 주식, 채권과 같은 위험금융자산은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보유액과 구성비가 크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에코 세대의 가계 자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비교 분석한 황금진(2014)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구성비가 60.82%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고나경(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낮은 집단은 에코 세대 중 여성이었으며, 에코 세대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387.28만원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에코 세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78.63만원이며, 총자산은 약 1억 9545만원, 총부채는 4203.2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 세대의 가계수지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충족비율은 92.4%, 장기부채부담지표(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 충족비율은 86.4%로 나타났으며, 투자성향지표(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충족비율은 66.1%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대와 30대는 연구자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 에코 세대, M세대, N세대 등과 같이 다른 용어로 표현됐지만 연령대별, 세대별로 상이한 재무상태와 재무관리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 20-30대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 행동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정순돌 외(2018)에 따르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N세대(1975년~1987년 출생, 현재 30대 포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M세대(1988년 및 이후 출생, 현재 20-30대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N세대 포함)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재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세대별 금융상품 보유 행동을 살펴본 주소현 외(2020)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8년~1998년 출생자, 현재 20-30대 포함)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과신 성향이 강할수록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당당한 세대라는 특성이 개인 재무와 관련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주소현 외, 2020).

세대별 재무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주소현·김정현(2011)에 따르면,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에코 세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였으며, 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투자자들의 투자실태를 분석한 금융투자협회(2011)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재무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 중 Bleemer et al(2014)에 따르면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주택가격의 상승,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자신의 재무상태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세대별 금융상품 보유 행동에 관해 살펴본 주소현 외(2020)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8~1998년 출생자)와 다른 세대를 비교할 때 밀레니얼 세대는 금융투자상품 중 안정적인 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높고,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품을 보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진행되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경험이 증가하면, 이전 세대에 비해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고나경(2017)은 에코 세대(1979년~1992년 출생자)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베이비붐 세대(에코 세대의 부모 세대)의 증가된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유행

에 민감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과감하게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임미리(2013)는 이 세대의 재무구조가 저축보다는 소비문화에 익숙하며, 장기 실업과 미취업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편이고, 결혼, 출산, 양육에 따른 자기희생보다는 소비를 향유하고 현재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부모와 어떠한 사회·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그들의 재무상태, 재무효능감 및 재무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독립계획 및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전형적인 쉐어하우스족과 달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자신의 재무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부모와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와 재무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 준비도와 재무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은 어떠한가.

1-1.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1-2. 자녀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어떠한가.

1-3. 자녀와 부모의 현금 교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및 재무건전성은 어떠한가.
- 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3.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4.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2.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3.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4-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되는가.
- 4-2.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의해 조절되는가.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제외), 부모와 동거 중(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동거하는 경우도 포함)이라고 응답한 20대와 3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마이크로밀엠 브레인)을 통해 2021년 0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2021 한국소비자학회 석·박사 논문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균등 할당하여 총 428명을 표집하였고, 응답 자료의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이상치(Outlier) 자료를 제외하였다. 최종 조사대상자는 20대 남자 98명, 30대 남자 102명, 20대 여자 103명, 30대 여자 108명으로, 총 411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 3)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 4)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을 조사하였고,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와 모 각각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조사하였으며, 월평균 소득과 자가보유 여부를 질문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술·기능직, 농림·축산·어업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직, 자영업, 기타의 8가지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직업은 위의 8가지 항목에 주부와 무직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시 단위 중소도시, 읍·면·부(농·어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 자녀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은 향후 독립계획,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 부모의 현금(생활비) 교류 여부를 조사하였다.

향후 독립계획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독립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통계청(2020) 사회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귀하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 (1점 ‘매우 불만족한다’ ~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자녀와 동거부모 간에 어떠한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것은 생활양식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함을 의미하므로, 현물을 제외하고 현금에 한정하여 교류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거 중인 부모에게 생활비나 용돈의 목적으로 현금을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다면 정기적 지급 여부와 연간 평균 지급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의 목적으로 현금을 받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여기에는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하였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다면, 정기적 수령 여부와 연간 평균 수령액을 조사하였다.

3)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

(1)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재무상태는 소득·지출과 자산·부채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8>). 자녀와 부모의 월평균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세전 소득으로 조사하였다. 월평균지출액은 식비, 의복구입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일상 소비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과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모두 합한 총 연간 지출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저축 및 투자액은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주식 등 저축과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금융자산은 다시 예·적금, 펀드, 주식·채권·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총 보유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부채는 용도에 따라 주택마련 대출, 자동차 구입(대출, 할부금), 신용카드(연체, 할부 및 현금서비스 포함),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현재 잔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8> 소득지출, 자산부채의 구분 및 유형

구분		유형	
소득	월평균총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	
지출	월평균지출	식비, 의복 구입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일상 소비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과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모두 합한 총 연간 지출 금액을 12로 나눈 값	
	저축 및 투자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주식 등 저축과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연간 총액	
자산	금융 자산	예·적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펀드	적립식 펀드, 예치식 펀드 등
		주식·채권·파생상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총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 주식·채권·파생 등 금융자산의 총합
	부동산 자산	거주주택 부동산 자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구 집기 등의 현재가치, 빌려준 돈 등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관련자산, 기타 자산의 총합	
부채	주택마련 대출		
	자동차 구입(대출, 할부금)		
	신용카드(연체, 할부 및 현금 서비스 포함)		
	마이네스 통장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		
총부채	주택마련 대출,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마이네스 통장,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액의 총합		

(2) 재무건전성(재무비율)

소득·지출, 자산·부채 자료를 근거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재무비율 네 가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20-30대 미혼의 일반적인 재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현금흐름 측면에서 소득 대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계수지지표(월평균 지출/월평균 소득)를 산정하였고, 보조 지표로 저축성향지표(월평균 저축투자액/월평균 소득)를 활용하였다.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는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금융자산비중지표(금융자산/총자산)를 활용하였고, 부채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부채부담지표(총부채/총자산)를 파악하였다.

각각의 재무비율을 산정한 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재무건전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재무지표	재무비율	설명	가이드라인
가계수지 지표	$\frac{\text{월평균지출}}{\text{월평균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지출: 식비, 의복 구입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일상 소비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과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모두 합한 총 연간 지출 금액을 12로 나눈 값 - 월평균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 	0.7이하

저축성향 지표	$\frac{\text{월평균저축투자액}}{\text{월평균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저축투자액: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주식 등 저축과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값 - 월평균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 	0.3이상
금융자산 비중지표	$\frac{\text{금융자산}}{\text{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 주식·채권·과생 등 금융자산의 총합 -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기타 자산의 총합 	0.4이상
장기부채 부담지표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채: 주택마련 대출,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액의 총합 -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기타 자산의 총합 	0.4이하

4)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

(1)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재무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한 것이다. Lown(201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해당 척도는 국내에서는 이필수(2015), 정순들(2018) 등이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의 6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아래 <표 10>과 같다. 각각의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제시하였고, 해당 문항들은 모두 역 문항에 해당하므로 역

코딩하였다. 역 코딩한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자기 효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0> 재무적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

문항 내용
1. 나에게 재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2.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때는 기존의 지출계획을 따르기 어렵다.
3.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면 나는 보통 돈을 빌린다.
4. 나는 재무적으로 문제에 직면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는다.
5. 나는 나의 재무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에 자신이 없다.
6. 나는 은퇴 이후 돈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2) 재무행동

재무행동의 측정도구는 김정현·최현자(2012), 이지혜·주소현(2013), 김아름·양혜경(2016), 정우진(2018)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환경과 재무의 사결정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해당 문항은 아래 <표 11>과 같다. 각각의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제시하였고, 김정현·최현자(2012)가 기존에 제시한 5가지 영역으로 행동 영역을 구분하였다. <표 11>의 문항 내용 중 4번, 9번, 12번은 역 문항에 해당하므로 분석 시 역코딩하였다. 각 행동 영역별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영역별 재무행동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1> 재무행동 측정 문항

행동 영역	문항 내용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1.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액수와 납부 시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2. 나는 금전출납부 혹은 가계부 등으로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한다.
	3. 나는 비상금을 준비해 두었다.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4.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5.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6. 대출이나 신용카드 납부액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는다.
저축과 투자 관리 행동	7. 나는 저축이나 투자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찾아본다.
	8. 나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을 고려한다.
	9.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보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이다.
위험관리와 보험관리 행동	10.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11. 리플렛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상품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12.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 결정 행동	13.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재무상황을 점검한다.
	14.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재무관리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기간에 따라 구분한 장단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16. 5년 후, 10년 후, 내 재정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4. 분석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특성,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부모와의 현금교류 특성, 소득지출상태, 자산부채상태,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른 재무상태,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t-test),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모델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에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하여 독립계획 여부 및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독립계획 여부를 구분하는 조절변수인 가변수(독립계획 있음=1, 독립계획 없음=0)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를 구분하는 가변수(생활비 지급=1, 생활비 미지급=0) 및 그 가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모델에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각각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와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모델1. 독립계획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f(x)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cdots \cdots + \beta_k X_k + Z_p * (\beta_{0p} + \beta_{1p} X_1 + \beta_{2p} X_2 \cdots \cdots + \beta_{kp} X_k)$$

모델1에서 X_i ($i=1$ 부터 k)은 독립변수를 나타내며, Z_p 는 가변수(조절변수)로서 독립계획이 없는 경우는 $Z_p = 0$,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는 $Z_p = 1$ 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때, 각 독립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독립계획 없음 [$Z_p = 0$]

$$f(x)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cdots \cdots + \beta_k X_k$$

독립계획 있음 [$Z_p = 1$]

$$f(x) = (\beta_0 + \beta_{0p}) + (\beta_1 + \beta_{1p})X_1 + (\beta_2 + \beta_{2p})X_2 + \cdots \cdots (\beta_k + \beta_{kp})X_k$$

여기에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의 독립변수 X_1 계수는 β_1 이지만,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의 X_1 계수는 $(\beta_1 + \beta_{1p})$ 이다. β_{1p}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독립변수 X_1 이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다름을 의미한다.

모델2.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의 조절효과 검증

$$f(x)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cdots \cdots + \beta_k X_k + Z_g * (\beta_{0g} + \beta_{1g} X_1 + \beta_{2g} X_2 \cdots \cdots + \beta_{kg} X_k)$$

모델2에서 X_i ($i=1$ 부터 k)은 독립변수를 나타내며, Z_g 는 가변수(조절변수)

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Z_g = 0$,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Z_g = 1$ 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할 때, 각 독립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부모에게 생활비 미지급 [$Z_g = 0$]

$$f(x)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부모에게 생활비 지급 [$Z_g = 1$]

$$f(x) = (\beta_0 + \beta_{0g}) + (\beta_1 + \beta_{1g})X_1 + (\beta_2 + \beta_{2g})X_2 + \dots + (\beta_k + \beta_{kg})X_k$$

마찬가지로 생활비 미지급 집단의 독립변수 X_1 계수는 β_1 이지만, 생활비 지급 집단의 X_1 계수는 $(\beta_1 + \beta_{1g})$ 이다. β_{1g}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독립변수 X_1 이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를 것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은 SPSS 23.0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

1)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그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2>와 같다.

조사대상자인 자녀의 성별은 남자 200명(48.7%), 여자 211명(51.3%)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30.25세로, 20-29세 201명(48.9%), 30-39세 210명(51.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49명(11.9%), 대학 졸업 330명(80.3%), 대학원 이상 32명(7.8%)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관리직 53명(12.9%), 사무직 246명(59.9%),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70명(17.0%),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 14명(3.4%), 자영업 16명(3.9%), 기타 12명(2.9%)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 20-30대 미혼 취업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116명(28.2%), 6대 광역시 107명(26.0%), 시 단위 이하 188명(45.7%)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부 연령 61.35세, 모 연령 평균은 58.26세로 나타났다. 부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238명(57.9%), 대학 졸업 146명(35.5%), 대학원 이상 27명(6.6%)으로 나타났으며, 모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289명(70.3%), 대학 졸업 109명(26.5%), 대학원 이상 13명(3.2%)으로 나타났다. 부 직업은 전문·관리직 51명(12.4%), 사무직 62명(15.1%), 서

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109명(26.5%),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 63명(15.3%), 자영업 70명(17.0%), 기타, 주부, 무직은 56명(13.6%)으로 나타났으며, 모 직업은 전문·관리직 30명(7.3%), 사무직 39명(9.5%),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86명(20.9%),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노무직 49명(11.9%), 자영업 31명(7.5%), 기타, 주부, 무직 176명(42.8%)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418.97만원이었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2명(78.3%)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11)

	변수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조사대상 자녀 특성	성별	남자	200(48.7)
		여자	211(51.3)
	연령	20-29세	201(48.9)
		30-39세	210(51.1)
		평균(세)	30.25(4.1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9(11.9)
		대학 졸업	330(80.3)
		대학원 이상	32(7.8)
	직업	전문·관리직	53(12.9)
		사무직	246(59.9)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70(17.0)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노무직	14(3.4)
		자영업	16(3.9)
		기타	12(2.9)
	현재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16(28.2)
		6대 광역시	107(26.0)

		시 단위 이하	188(45.7)
부모 특성	부 연령	평균(세)	61.35(5.35)
	모 연령	평균(세)	58.26(5.24)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8(57.9)
		대학 졸업	146(35.5)
		대학원 이상	27(6.6)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289(70.3)
		대학 졸업	109(26.5)
		대학원 이상	13(3.2)
	부 직업	전문·관리직	51(12.4)
		사무직	62(15.1)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109(26.5)
		농·축·어업 관련, 단순노무직	63(15.3)
		자영업	70(17.0)
		기타, 주부, 무직	56(13.6)
	모 직업	전문·관리직	30(7.3)
		사무직	39(9.5)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86(20.9)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노무직		49(11.9)	
자영업		31(7.5)	
기타, 주부, 무직		176(42.8)	
월평균 소득	평균(만원)	418.97(441.587)	
자가 보유 여부	보유	322(78.3)	
	미보유	89(21.7)	

2) 자녀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 13>와 같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7.6%가 독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독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n=319)에게 앞으로 몇 년 이내로 독립할 계획인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2.88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4년 이하가 29.9%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이하 26.0%, 4년 초과 2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년 이내에 독립할 계획인지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현재 연령에 독립계획 했수를 합산하여 독립 예상 연령을 산출하였다. 독립 예상 연령은 평균 32.93세로 나타났으며, 30대에 독립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1.0%, 40대가 8.8%였다.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연령대가 주로 30대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독립이 결혼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김정석, 2006; 이영분 외, 2011; 김필숙 외, 2019)와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23세, 여성 30.78세(통계청, 2020)라는 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8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을 보였고, 만족(매우 만족 + 만족) 집단이 67.2%를 차지했고, 보통 집단이 23.4%, 불만족(매우 불만족 + 불만족) 집단은 9.5%였다. 부모동거 20-30대 미혼 취업자는 동거 중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자녀의 독립계획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n=411)

변수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독립 계획	독립계획 여부	있다	319(77.6)
		없다	92(22.4)

	독립계획 시기 (n=319)	1년 이하	73(22.9)
		1년 초과 2년 이하	83(26.0)
		3년 초과 4년 이하	95(29.8)
		4년 초과	68(21.3)
		평균(년)	2.88(1.89)
독립 예상 연령 (n=319)	20대	67(21.0)	
	30대	224(70.2)	
	40대	28(8.8)	
	평균(세)	32.93(4.05)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불만족	39(9.5)	
	보통	96(23.4)	
	만족	276(67.2)	
	평균(5점 리커트 척도)	3.86(1.01)	

3) 자녀와 부모의 현금 교류 특성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동거부모 간에 어떠한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반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생활비나 용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표 14>).

<표 14> 자녀-부모 간 현금 교류 여부

(n=411)

구분	자녀 → 부모		χ^2	p	
	지급 (n=248)	미지급 (n=163)			
부모 → 자녀	지급	19(4.6)	22(5.4)	3.730	.053 [†]

	(n=41)			
	미지급 (n=371)	229(55.7)	141(34.3)	

*p<.05, **p<.01, ***p<.001, † p<0.10

자녀가 생활비나 용돈의 목적으로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60.3%였고,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비율은 10.0%를 차지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는 4.6%(19명)이었고, 자녀만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현금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55.7%(229명)였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현금을 이전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5.4%(22명)이었고, 부모와 자녀 서로 현금 교류가 없는 경우가 34.3%(141명)이었다.

갹거루족의 유형을 분류한 오호영(2015)에서는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6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취업자인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경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생활비, 용돈)을 지급하는 집단(n=248)과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생활비, 용돈)을 지급하는 집단(n=41)을 대상으로 지급 금액과 정기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집단의 경우, 연간 평균 지급액은 약 256.47만원이었고, 78.2%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집단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의 규모는 연평균은 약 227.07만원이었고, 46.3%

가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표 15> 자녀와 부모의 생활비(현금) 교류 특성

(n=411, 단위: 만 원)

		자녀 → 부모 (n=248)	부모 → 자녀 (n=41)
평균 지급액 (연간, 만원)		256.47 (265.01)	227.07 (289.61)
정기 지급 여부	예	194(78.2)	19(46.3)
	아니오	54(21.8)	22(53.7)

2.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상태 비교

1)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1)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조사대상자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에 대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8.64 만원,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131.89 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저축 투자액은 평균 759.05 만원으로, 월평균 저축 투자액은 약 63.25 만원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97.3%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자산 평균은 4,426.72만원, 자산 보유자의 총자산 평균은 4,548.45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예·적금, 펀드, 주식·채권·파생상품)의 보유율은 96.8%이고, 보유자의 평균은 3087.84만원이다. 조사대상자의 자산 상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 중 예·적금 보유율은 92.2%, 보유자의 예·적금 보유액 평균은 2,126.96만원, 펀드 보유율은 28.5%, 보유자의 펀드 보유액 평균은 721.50만원,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율은 67.4%, 보유자의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 평균은 1,221.75만원, 부동산 자산의 보유율은 14.1%, 보유자의 부동산 자산액 평균은 6,146.16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 보유자가 가장 많았으며, 자산보유액은 부동산 자산보유액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41.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부채 평균은 925.68만원, 부채 보유자의 총부채 평균은 2,224.87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부채 상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 중 주택마련 대출 보유율은 10.5%, 보유자의 주택마련 대출 보유액 평균은 3,770.67만원, 신용카드 부채 보유율은 22.4%, 보유자의 신용카드 부채 보유액 평균은 321.24만원, 학자금 대출 보유율은 10.0%, 보유자의 학자금 대출 보유액 평균은 821.34만원, 기타 부채는 자동차 구입(대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그 외 기타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보유율은 20.0%, 보유자의 기타 부채 보유액 평균은 1,891.2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율은 신용카드 부채가 가장 높았지만, 평균 부채액은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자녀의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n=411,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평균(표준편차)		
월평균 소득	268.64(118.38)		
월평균 지출	131.89(150.42)		
월평균 저축·투자액	63.25(74.80)		
구분	전체	보유자(%)	보유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산	총자산	4,426.72 (6,614.89)	400(97.3)	4,548.45 (6,663.93)	
	금융 자산	예·적금	1,961.36 (2,552.71)	379(92.2)	2,126.96 (2,591.29)
		펀드	205.39 (660,933)	117(28.5)	721.50 (1,080.92)
		주식·채권· 파생상품	823.42 (1,553.40)	277(67.4)	1,221.75 (1,759.59)
	부동산 자산	867.34 (5,153.77)	58(14.1)	6,146.16 (12,571.45)	
	기타 자산	569.20 (1,194.91)	154(37.5)	1,519.11 (1,540.68)	
부채	총부채	925.68 (2,246.738)	171(41.6)	2,224.87 (3,044.12)	
	주택마련 대출	394.50 (1,698.66)	43(10.5)	3,770.67 (3,890.23)	
	신용카드 부채	71.91 (426.82)	92(22.4)	321.24 (860.13)	
	학자금 대출	81.93 (339.62)	41(10.0)	821.34 (748.18)	
	기타 부채	377.74 (1,185.163)	82(20.0)	1,891.28 (2,052.10)	

(2) 재무건전성(재무비율)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크게 4가지이다. 현금흐름에서 가계수지표, 저축성향지표를 확인하였고,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 장기부채부담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를 활용하였다. 각 재무비율의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7>).

첫째, 가계수지표는 월평균 생활비(월평균 지출액)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 0.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수지표 준거기

준은 0.7 이하로 선정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 중 가계 수지지표를 충족한 비율은 83.2%였다.

둘째, 저축성향지표는 총소득에서 총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저축성향지표의 평균값은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 대비 총저축액 비율의 준거기준을 0.3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한 비율은 35.8%였다.

일반적으로 저축성향지표는 가계수지지표의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경제학적으로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것을 저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가계수지지표와 저축성향지표의 합은 1에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지출과 저축 및 투자액을 조사함에 있어, 각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여 합산하지 않고 단일 문항으로 총합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그만큼 본인의 지출액과 저축 및 투자액의 경로와 현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금융자산비중지표는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예·적금, 펀드, 주식·채권·과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산부채 상태 측면에서의 투자성향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자산비중지표의 평균값은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의 준거기준을 0.4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 중 금융자산비중지표를 충족한 비율은 86.1%였다.

넷째,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용된다. 부채부담지표의 평균값은 3.64로 나타났다. 분석자료에서 총자산과 총부채의 응답 범위가 크게 나타나 부채부담지표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의 준거기준은 0.4 이하로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자 중 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한 비율은 77.6%이었다.

세대별 재무상태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황금진, 2014; 이현정, 2015;

윤종인, 2016; 고나경, 2017; 정순돌 외, 2018)에서는 현재 20-30대의 경우, 저축성 예금, 예·적금 상품의 비중, 금융자산의 구성비, 금융자산비중지표의 준거기준 충족 비율 등이 높은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자녀의 재무건전성(재무비율) 평가

(n=411)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이드라인	빈도(%)	
			충족	미충족
가계수지표	0.51(0.62)	0.7 이하	충족	342(83.2)
			미충족	69(16.8)
저축성향지표	0.24(0.29)	0.3 이상	충족	147(35.8)
			미충족	264(64.2)
금융자산비중지표	0.82(0.28)	0.4 이상	충족	354(86.1)
			미충족	57(13.9)
부채부담지표	3.64(50.22)	0.4 이하	충족	319(77.6)
			미충족	92(22.4)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1) 소득지출, 자산부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8>).

월평균 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에코 세대

(1979~1992년 출생자, 현재 30대 포함)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고나경(2017)과 같은 결과이다. 교육수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과 저축투자액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저축 투자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은 기타 직업과 전문·관리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월평균 저축투자액의 경우,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자영업에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사무직의 경우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자산보유액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9〉)

성별에 따라 금융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적금 보유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 금융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 예·적금과 기타 자산(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구 집기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빌려준 돈 등을 포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적금 자산과 기타 자산의 경우 30대가 20대보다 많았다. 이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소득이 있는 시기가 더 오래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그만큼 예·적금 보유액과 기타 자산의 보유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에코 세대(1979~1992년생, 현재 30대 포함)의 경우 원금을 보존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을 선호한다고 한 이현정(2015)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교육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중 예·적금 보유액, 펀드 보유액,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자산 중 예·적금 보유액은 고졸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보였다. 펀드 보유액과 주식·채권·파생상

품 보유액은 교육수준이 고졸이하, 대학 졸업인 집단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보유액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업에 따라 예·적금 보유액은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보다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사무직의 경우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에 비해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저축 투자액도 많으므로 예·적금 보유액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부채보유액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

성별에 따라 기타 부채(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기타 부채 포함)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대출 및 할부 거래 등의 재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30대가 20대보다 주택마련 대출액이 많았다. 이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취업 시장에 오래 있었던 것만큼 금융자산 외에 비금융자산에도 투자하는 등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결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 예상 연령 중 30대의 비중(70.2%)이 높은 것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의 경제적, 주거적 자립 등을 위한 30대의 주택마련 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액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자금 대출액은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 그만큼 교육 연한이 길어지므로 학자금 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신용카드와 기타 부채(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그 외 기타 부채액 포함)액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용카드 부채는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 노무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비교적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직업적 특성을 지

니므로 상대적으로 할부거래 등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부채는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에서 가장 낮았다.

<표 1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지출 비교

(n=411, 단위: 만 원)

변수	구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월평균 저축투자액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280.07(111.11)	1.911 [†]	125.51(83.88)	-0.837	62.26(73.55)	-0.262
	여자	257.81(124.18)		137.93(193.47)		64.20(76.13)	
연령	20-29세	259.44(138.23)	-1.544	127.33(142.13)	-0.601	63.73(71.95)	0.126
	30-39세	277.45(95.12)		136.25(158.15)		62.80(77.6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34.47(67.60)	2.461 [†]	103.90(54.83)	0.974	41.42(60.40)	3.373 [*]
	대학 졸업	272.29(125.83)		136.04(164.91)		64.51(76.39)	
	대학원 이상	283.28(89.64)		131.97(67.30)		83.75(72.27)	
직업	전문·관리직	286.25(121.66)	2.661 [*]	131.15(91.90)	0.409	61.80(76.01)	4.081 ^{**}
	사무직	272.73(88.56)		139.61(183.35)		75.06(78.65)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243.97(94.06)		115.80(63.28)		37.62(53.24)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 노무직	227.36(94.96)		115.00(56.26)		52.45(98.15)	
	자영업	232.31(147.25)		119.06(105.80)		29.61(45.95)	

	기타	347.50(406.67)	b		107.50(79.10)		34.58(37.62)	a	
--	----	----------------	---	--	---------------	--	--------------	---	--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1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보유액 비교

(n=411, 단위: 만 원)

변수	구분	예·적금		펀드		주식·채권·파생상품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1574.32 (2359.11)	-3.032**	250.77 (787.71)	1.342	1036.33 (1775.32)	2.703**	951.33 (4236.51)	0.321	667.31 (1236.32)	1.621			
	여자	2328.22 (2677.79)		162.38 (510.93)		621.61 (1280.79)		787.73 (5902.27)		476.21 (1149.49)				
연령	20-29세	1671.69 (2507.44)	-2.263*	160.14 (583.83)	-1.366	751.32 (1412.10)	-0.920	606.21 (5426.44)	-1.005	370.31 (855.82)	-3.377**			
	30-39세	2238.62 (2570.75)		248.70 (725.88)		892.43 (1678.03)		1117.28 (4878.45)		759.58 (1423.23)				
교육수	고졸 이하	1110.20 (1474.70)	a	3.207*	60.88 (209.42)	a	2.850†	486.06 (1068.03)	a	4.358*	396.31 (1605.62)	0.281	453.47 (945.65)	0.977

준	대학 졸업	2093.35 (2659.17)	a		206.25 (638.79)	ab		807.06 (1510.86)	a		957.75 (5685.31)		561.46 (1160.26)	
	대학원 이상	1903.59 (2536.95)	a		417.81 (1139.90)	b		1508.75 (2292.33)	b		656.28 (1944.53)		826.28 (1766.94)	
직 업	전문· 관리직	1720.09 (2173.71)	ab	4.391**	341.81 (769.13)	1.192	945.11 (1549.17)	1.620	1733.89 (10363.22)	0.582	548.51 (1081.03)	0.277		
	사무직	2402.65 (2858.66)	b		219.09 (725.00)		947.97 (1656.93)		928.98 (4539.26)		597.87 (1233.43)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 능직	1236.11 (1884.94)	ab		101.19 (322.15)		569.57 (1380.38)		269.33 (998.28)		552.51 (1143.37)			
	농·축·어 업 관련 및 단순 노무직	718.57 (935.50)	a		72.86 (266.90)		142.50 (284.92)		428.57 (1603.57)		642.86 (1625.62)			
	자영업	835.63 (961.26)	ab		267.50 (769.26)		373.13 (999.51)		687.50 (2272.11)		250.00 (401.66)			
	기타	1161.92 (1209.31)	ab		1.67 (5.77)		608.33 (1507.83)		16.67 (57.74)		510.00 (1443.77)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2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보유액 비교

(n=411, 단위: 만 원)

변수	구분	주택마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기타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297.15 (1681.98)	-1.132	95.20 (495.70)	1.068	92.38 (331.15)	0.606	551.05 (1417.96)	2.885**
	여자	486.77 (1713.20)		49.83 (349.03)		72.04 (347.95)		212.68 (883.78)	
연령	20-29세	231.49 (1127.16)	-1.933 [†]	38.33 (171.04)	-1.592	84.97 (344.85)	0.177	344.62 (971.53)	-0.547
	30-39세	550.52 (2096.34)		104.05 (572.07)		79.03 (335.34)		408.65 (1360.2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57.14 (1560.05)	0.561	111.35 (402.34)	0.256	11.84 (72.10)	7.310**	678.57 (1627.07)	1.804
	대학 졸업	357.54 (1693.40)		67.93 (448.16)		72.32 (306.52)		336.20 (1132.06)	
	대학원 이상	679.69 (1963.61)		52.50 (155.56)		288.44 (683.79)		340.31 (845.01)	
직업	전문·관리직	504.72 (1714.65)	0.211	136.42 (688.75)	3.198**	164.15 (499.36)	0.999	553.40 (1105.94)	2.591*
	사무직	403.17		26.79		71.06		246.66	

	(1863.14)	(70.95)		(321.77)	(911.79)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420.14 (1533.32)	103.04 (359.21)	a	92.79 (342.71)	773.01 (1943.96)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노무직	221.43 (800.17)	433.57 (1602.24)	b	0.00 (0.00)	410.71 (1175.42)
자영업	106.25 (399.11)	12.50 (50.00)	a	62.50 (136.01)	200.94 (747.32)
기타	166.67 (577.35)	187.50 (575.30)	a	0.00 (0.00)	166.67 (577.35)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2) 재무건전성(재무비율)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1>).

성별에 따라 금융자산비중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총자산이 더 많으며, 여성의 예·적금 보유액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자산보유액이 많으므로 남성은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행동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 금융자산비중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가 30대에 비해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30대가 20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총자산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20대에 비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과 기타 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업에 따라 저축성향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사무직이 자영업에 비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직업인만큼 예·적금과 같은 안전 금융자산에 저축하는 금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관리직의 경우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자산보유액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모두 다양하게 투자하므로 저축성향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비교

(n=411)

변수	구분	가계수지표		저축성향지표		금융자산비중지표		부채부담지표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0.46(0.27)	-1.1641	0.22(0.24)	-1.306	0.78(0.30)	-2.641**	1.03(3.91)	-1.043
	여자	0.56(0.83)		0.25(0.34)		0.85(0.26)		6.19(70.38)	
연령	20-29세	0.50(0.45)	-0.109	0.25(0.25)	0.676	0.86(0.25)	3.221**	1.56(6.60)	-0.814
	30-39세	0.51(0.76)		0.23(0.33)		0.77(0.30)		5.65(70.05)	
교육수준	고졸 이하	0.45(0.24)	0.229	0.17(0.25)	1.910	0.79(0.30)	0.164	1.56(4.86)	0.114
	대학 졸업	0.52(0.69)		0.24(0.30)		0.82(0.28)		4.22(55.77)	
	대학원 이상	0.49(0.25)		0.30(0.22)		0.82(0.26)		0.67(1.54)	
직업	전문·관리직	0.46 (0.220)	0.214	0.21 (0.201)	2.805*	0.81 (0.276)	0.560	0.42 (0.920)	0.103
	사무직	0.53 (0.784)		0.28 (0.325)		0.82 (0.271)		5.00 (64.392)	
	서비스 판매 및 기술·기능직	0.48		0.16		0.80		2.75	

		(0.226)		(0.233)		(0.296)		(8.701)
	농·축·어업 관련 및 단순 노무직	0.56 (0.305)		0.16 (0.248)	a	0.84 (0.317)		0.79 (1.850)
	자영업	0.47 (0.236)		0.13 (0.162)	a	0.75 (0.349)		0.42 (0.930)
	기타	0.43 (0.267)		0.17 (0.228)	a	0.91 (0.200)		2.30 (7.527)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3)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조사대상자의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상태, 재무건전성을 비교한 결과, 부채 중 학자금 대출 보유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재무상태와 재무건전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2>).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자산부채 상태를 살펴본 결과,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2>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비율 비교

(n=411, 단위: 만 원)

변수		독립계획 있음 (n=319)	독립계획 없음 (n=92)	t	
소득 지출	월평균 소득	267.10(97.96)	273.98(171.96)	-0.490	
	월평균 지출	130.29(164.33)	137.45(86.75)	-0.402	
	월평균 저축 투자액	63.69(73.33)	61.74(80.09)	0.220	
자산 부 채	금융 자산	예·적금	1901.31(2506.48)	2169.59(2710.86)	-0.888
		펀드	190.04(623.17)	258.62(779.37)	-0.877
		주식·채권· 파생상품	857.09(1579.86)	706.68(1460.15)	0.818
	부동산 자산	916.78(5376.58)	695.92(4314.59)	0.362	
	기타 자산	555.56(1135.49)	616.52(1387.25)	-0.431	
	부 채	주택마련 대출	368.78(1640.91)	483.68(1892.28)	-0.571
		신용카드	74.34(458.25)	63.48(294.76)	0.215
		학자금 대출	99.96(380.57)	19.45(91.97)	3.446**
기타		334.47(1034.90)	525.97(1599.07)	-1.085	
재무비율	가계수지지표	0.50(0.69)	0.53(0.31)	-0.400	

	저축성향지표	0.23(0.24)	0.26(0.43)	-0.774
	금융자산 비중지표	0.81(0.28)	0.83(0.28)	-0.699
	부채부담지표	1.04(4.96)	12.89(106.62)	-1.042

*p<.05, **p<.01, ***p<.001, † p<0.10

4)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건전성 비교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및 재무건전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월평균 저축투자액, 금융자산 중 예·적금, 부채 중 신용카드 보유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보유액과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성인 자녀가 동거 중인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신의 재무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입과 지출관리 및 저축과 투자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 재무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3>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재무비율 비교

(n=411, 단위: 만 원)

변수		생활비 지급 (n=248)	생활비 미지급 (n=163)	t
소득 지출	월평균 소득	275.30(97.68)	258.50(144.05)	1.409
	월평균 지출	137.50(130.49)	123.36(176.58)	0.932
	월평균 저축 투자액	69.08(81.55)	54.39(62.37)	1.955†
자 산	금 융			
	예·적금	2170.39(2775.09)	1643.33(2140.42)	2.167*
	펀드	223.51(685.91)	177.83(622.06)	0.685

부 채	자 산	주식·채권· 파생상품	821.48(1514.22)	826.37(1615.90)	-0.031	
	부동산 자산		929.18(4511.66)	773.25(6014.41)	0.300	
	기타 자산		568.98(1127.24)	569.55(1294.68)	-0.005	
	부 채	주택마련 대출		462.17(1987.36)	291.53(1123.86)	0.996
		신용카드		99.72(543.20)	29.60(90.49)	1.991*
학자금 대출		69.48(289.88)	100.89(403.98)	-0.917		
기타		427.72(1251.92)	300.68(1074.92)	1.063		
재 무 비 율	가계수지지표		0.50(0.41)	0.51(0.86)	-0.178	
	저축성향지표		0.25(0.33)	0.21(0.22)	1.333	
	금융자산 비중지표		0.81(0.27)	0.82(0.29)	-0.123	
	부채부담지표		4.98(64.59)	1.65(7.14)	0.649	

*p<.05, **p<.01, ***p<.001, † p<0.10

3.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전체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 점수는 <표 24>와 같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6~30점 범위), 평균 20.01점으로 나타났다.

재무행동은 5점 리커트 척도 16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16~80점 범위),

평균 56.64점으로 나타났다. 재무행동의 5가지 하위영역 중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10.18점, 신용과 부채관리 관련 문항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11.36점, 저축과 투자 관련 문항의 15점 만점에 평균 10.96점, 위험관리와 보험 관련 문항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10.38점,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관련 문항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9.98점으로 나타났다.

<표 24>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 및 재무행동
(n=411, 단위: 점)

변수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재무적 자기효능감		20.01(4.28)
재무행동	전체	56.64(7.95)
	수입과 지출관리	10.18(2.36)
	신용과 부채관리	11.36(1.85)
	저축과 투자	10.96(2.09)
	위험관리와 보험	10.38(1.74)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9.98(2.2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5가지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무행동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수준이었고,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다.

둘째로, 연령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무 행동 수준이 높다고 밝힌 김정현·최현자(2012)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로, 20대와 30대, 이렇게 두 가지의 연령대를 연구대상으로 살펴본 경우에는 재무행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교육수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재무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 높은 수준의 재무행동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재무행동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저축과 투자 행동,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행동,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 수준이 높으며, 재무행동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행동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선형·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1998; 김효정, 2000; 김정현·최현자, 2012; 이지혜·주소현, 2013; 김아름, 2016).

마지막으로 직업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재무행동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낮고, 자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

무직보다 전문·관리직과 자영업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재무행동은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보다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재무행동의 하위 영역 중 수입과 지출 관리 행동은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보다 기타 직업과 서비스·판매 및 기술·기능직,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용과 부채 관리 행동은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보다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영업에 비해 전문·관리직의 재무행동 중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판매 및 기술·기능직과 기타 직업에 비해 전문·관리직이 재무행동 중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높은 수준의 재무행동을 갖추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n=411, 단위: 점)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전체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성별	남성	20.24 (4.25)	52.57 (8.1)	10.05 (2.35)	11.12 (1.91)	10.82 (2.24)	10.34 (1.85)	10.24 (2.37)	19.80 (4.31)	53.14 (6.86)	10.31 (2.36)	11.58 (1.77)	11.09 (1.95)	10.43 (1.62)	9.73 (2.08)
	여성	19.80 (4.31)	53.14 (6.86)	10.31 (2.36)	11.58 (1.77)	11.09 (1.95)	10.43 (1.62)	9.73 (2.08)	t	1.039	-0.770	-1.130	-2.525*	-1.280	-0.562
연령대	20-29세	19.94 (4.32)	52.41 (7.69)	10.07 (2.39)	11.23 (1.83)	10.92 (2.19)	10.34 (1.83)	9.85 (2.25)	20.09 (4.26)	53.29 (7.29)	10.29 (2.33)	11.48 (1.86)	10.99 (2.00)	10.43 (1.65)	10.10 (2.22)
	30-39세	20.09 (4.26)	53.29 (7.29)	10.29 (2.33)	11.48 (1.86)	10.99 (2.00)	10.43 (1.65)	10.10 (2.22)	t	-0.344	-1.181	-0.927	-1.356	-0.339	-0.527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02 (4.26)	a	50.35 (6.71)	a	9.57 (2.24)	a	10.59 (2.00)	a	10.55 (1.99)	a	9.90 (1.37)	9.73 (2.10)		
	대학 졸업	20.06	ab	52.94	a	10.20	ab	11.40	b	10.95	ab	10.44	9.94		

		(4.26)		(7.33)		(2.33)		(1.81)		(2.07)		(1.72)		(2.23)	
	대학원 이상	21.09 (4.36)	b	55.91 (9.07)	b	11.00 (2.60)	b	12.03 (1.67)	b	11.63 (2.39)	b	10.53 (2.23)		10.72 (2.41)	
	F	2.368 [†]		5.539 ^{**}		3.620 [*]		6.589 ^{**}		2.568 [†]		2.237		2.096	
직업	전문·관리직	21.47 (4.33)	bc	53.75 (6.91)	c	10.09 (2.67)	b	11.21 (1.84)	ab	11.38 (1.99)		10.72 (1.47)	b	10.36 (2.02)	b
	사무직	20.01 (4.26)	abc	53.63 (7.68)	c	10.48 (2.36)	b	11.56 (1.85)	b	11.04 (2.09)		10.49 (1.77)	ab	10.07 (2.28)	ab
	서비스·판매 직 및 기술·기능직	18.91 (3.92)	ab	52.06 (6.55)	bc	10.04 (2.05)	b	11.26 (1.75)	ab	10.67 (2.11)		10.19 (1.66)	ab	9.90 (2.05)	a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	18.29 (4.84)	a	46.93 (6.71)	a	7.86 (1.75)	a	10.21 (1.72)	a	10.36 (2.56)		9.79 (1.97)	ab	8.71 (2.33)	ab
	자영업	21.69 (4.06)	c	49.94 (7.53)	abc	9.13 (2.22)	ab	10.94 (1.88)	ab	10.63 (1.86)		9.56 (1.71)	a	9.69 (2.24)	ab
	기타	19.92 (4.27)	abc	48.67 (7.56)	ab	9.58 (1.51)	b	10.33 (1.92)	a	10.25 (2.18)		9.75 (1.96)	ab	8.75 (2.60)	a
	F	3.179 ^{**}		3.958 ^{**}		4.532 ^{***}		2.705 [*]		1.347		2.148 [†]		2.103 [†]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2)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조사대상자의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재무행동의 하위 영역 중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비교 결과,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립계획이 있는 부모와 동거 중인 20-30대 미혼 취업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 자신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며 시기에 맞는 재무목표를 갖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재무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n=411, 단위: 점)

변수		독립계획 있음 (n=319)	독립계획 없음 (n=92)	t
재무적 자기효능감		19.95(4.22)	20.25(4.52)	-0.598
재무 행동	전체	53.06(7.52)	52.17(7.40)	0.995
	수입과 지출관리	10.19(2.40)	10.17(2.21)	0.051
	신용과 부채관리	11.33(1.90)	11.46(1.66)	-0.595
	저축과 투자	10.97(2.15)	10.89(1.88)	0.337
	위험관리와 보험	10.43(1.72)	10.22(1.78)	1.048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10.13(2.21)	9.43(2.25)	2.663**

* p<0.05, ** p<0.01, ***p<0.001

3)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조사대상자인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재무행동 영역 중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영역과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비교 결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영역과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소비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재무행동을 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재산상의 위험 등에 대비해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재무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행동 비교

(n=411, 단위: 점)

변수		생활비 지급 (n=248)	생활비 미지급 (n=163)	t
재무적 자기효능감		20.14 (4.60)	19.82 (3.75)	0.770
재무 행동	전체	53.38 (7.55)	52.07 (7.36)	1.740
	수입과 지출관리	10.40 (2.36)	9.87 (2.32)	2.240*
	신용과 부채관리	11.41 (1.89)	11.27 (1.79)	0.757
	저축과 투자	10.95	10.97	-0.103

		(2.17)	(1.98)	
	위험관리와 보험	10.55 (1.71)	10.13 (1.75)	2.375*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10.08 (2.23)	9.83 (2.25)	1.101

*p<0.05, **p<0.01, ***p<0.001

4.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무행동의 5가지 영역(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저축과 투자행동, 위험관리와 보험 관련 행동,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관련 행동)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재무적 자기효능감, 독립계획 여부,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여부, 월평균 소득, 총자산, 월평균 저축투자액, 부채 보유 여부, 부모 자가 보유여부를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508$, $p<.001$),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로, 직업이 사무직($\beta=.243$, $p<.01$)이거나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beta=.206$, $p<.05$)인 경우 전반적인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로,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의 재무행동 수준이 독립계획 없는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beta=.072$, $p<.10$). 즉,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갖고,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재무상태 등을 생각하

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행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475$, $p<.001$)을 미쳤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행동은 그 구성요인이 태도, 지식,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김정현·최현자, 2012). 따라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에 대한 태도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개인재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Dulebohn & Murray(2007)와 Engleberg(2007)의 기존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행동 수행을 위한 노력과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Engleberg, 2007),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꾸준히 높은 수준의 재무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Tonkunaga(1993)에 따르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신용 및 대출을 사용하는데 신중한 금융소비자와 무분별한 금융소비자를 구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통해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중하게 신용 및 부채관련 재무행동을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30대 청년층은 재무행동이 가장 활발하기 전 단계의 세대이므로, 추후 조사대상자가 활발한 재무행동이나 금융거래 행동을 할 때 향상된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재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075$, $p<.10$). 이는 총자산이 재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이선형·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1998; 김효정, 2000). 마지막으로, 월평균 저축투자액($\beta=.096$, $p<.05$)도 재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11)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상수)		30.961	2.610	
성별	여성	0.870	0.669	0.058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졸업	0.702	1.056	0.037
	대학원 이상	2.767	1.543	0.099
직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문·관리직	2.287	1.579	0.102
	사무직	3.709**	1.372	0.243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4.102*	1.468	0.206
	자영업	-0.418	2.061	-0.011
독립계획		1.296 [†]	0.774	0.072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0.703	0.656	0.046
재무적 자기효능감		0.831***	0.077	0.475
월평균 소득		-0.002	0.003	-0.026
총자산		8.471E-05 [†]	0.000	0.075
월평균 저축투자액		0.010*	0.005	0.096
부채 보유여부		0.442	0.656	0.029
부모 자가 보유여부		-1.078	0.784	-0.059
F		12.508***		
R ²		0.322		
adj. R ²		0.296		

*p<.05, **p<.01, ***p<.001, [†] p<0.10

1) 독립계획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중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963, p<.001$).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에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효과에 제시되어 있고, 독립계획 있는 집단에서 각 독립변수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계수를 더한 값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효과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먼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 독립계획 여부는 재무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재무행동 수준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재무행동 수준의 차이가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셋째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에서는 사무직의 재무행동 수준이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독립계획에 의해 사무직의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즉, 사무직의 재무행동 수준은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에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직업 종사자에 비해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갖고 있으며 독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재무행동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은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은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집단의 재무행동 수준은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영업자이면서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을 취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독립계획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계획적인 지출관리 및 저축행동을 하고, 자신의 금융환경에 알맞은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합리적인 재무행동을 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두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행동 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의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즉,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재무행동 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그 증분 계수가 유의한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계획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두에서 부모가 자가를 보유한 경우 자녀의 재무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재무행동 수준이 독립계획 여부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표 29>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독립계획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a)}
(n=41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상수)		33.389 (4.890)	-1.304 (5.683)
성별	여성	2.758 [†] (1.530)	-2.649 (1.702)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졸업	1.928 (2.375)	-1.533 (2.647)
	대학원 이상	-1.959 (3.499)	6.084 (3.890)
직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문·관리직	-4.464 (4.060)	8.275 (4.416)
	사무직	-1.595 (3.129)	6.864* (3.491)
	서비스·판매직 및	0.052	4.943

	기술·기능직	(3.363)	(3.754)
	자영업	-11.471* (4.770)	13.980** (5.280)
재무적 자기효능감		1.012*** (0.158)	-0.223 (0.181)
월평균 소득		-0.005 (0.004)	0.003 (0.006)
총자산		-2.760E-05 (0.000)	0.000 (0.000)
월평균 저축투자액		0.008 (0.009)	0.001 (0.010)
부채 보유 여부		2.144 (1.512)	-1.931 (1.678)
부모 자가보유 여부		-2.567† (1.522)	1.848 (1.774)
F		7.963***	
R ²		0.360	
adj. R ²		0.314	

a) 단순화한 회귀식 $f(x) = XA + Z_p * XB$ (X는 독립변수 벡터, $Z_p=0$ (독립계획 없음)

또는 1(독립계획 있음), A와 B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가 주효과를 B가 상호 작용효과를 의미함.

*p<.05, **p<.01, ***p<.001, † p<0.10

2)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표 3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중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654, p<.001). 자녀-부모 생활비 미지급 집단에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효과에 제시되어 있고,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집단에서 각 독립변수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계수를 더한 값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효과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자녀-부모 생활비 미지급 집단과 지급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먼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여부는 재무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로, 생활비 미지급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자녀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의해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의 재무행동 수준은 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집단과 미지급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신의 재무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다양한 저축 및 투자 방법을 알아보는 등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능동적으로 재무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Berg, 2007; Silva, 2012).

셋째, 생활비 미지급 집단과 지급 집단 모두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행동 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의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활비 지급여부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즉,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재무행동 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자녀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 그 증분 계수가 유의한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생활비 미지급 집단은 부채를 보유한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생활비 지급 집단에서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채를 보유한 집단의 재무행동 수준이 부(+)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이다. 앞서 연구문제 3에서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와 재무행동을 비교한 결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적금 보유액, 신용카드 부채액,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유의하게 많았고,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집단은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 외에도 부채관리 영역 등의 금융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미지급 집단과 지급 집단 모두에서 부모가 자가를 보유한 경우 자녀의 재무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재무행동 수준이 자녀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즉, 부모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재무행동 수준이 낮고,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재무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30>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a)}

(n=41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상수)		34.741 (4.369)	-0.374 (5.351)
성별	여성	1.076 (1.935)	-0.448 (1.361)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졸업	-1.036 (2.600)	1.889 (2.322)
	대학원 이상	-1.530	6.779*

		(2.681)	(3.259)
직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문·관리직	-0.403 (2.681)	3.643 (3.348)
	사무직	1.256 (2.127)	3.334 (2.795)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2.432 (2.348)	1.832 (3.022)
	자영업	-1.963 (2.640)	2.439 (4.875)
재무적 자기효능감		0.869*** (0.139)	-0.076 (0.168)
월평균 소득		0.002 (0.004)	-0.007 (0.006)
총자산		9.935E-05 (0.000)	-3.308E-06 (0.000)
월평균 저축투자액		0.015 (0.009)	-0.009 (0.010)
부채 보유 여부		3.389** (1.096)	-4.424** (1.383)
부모 자가보유 여부		-2.788* (1.393)	1.699 (1.696)
F		7.654***	
R ²		0.350	
adj. R ²		0.305	

a) 단순화한 회귀식 $f(x) = XA + Z_g * XB$ (X는 독립변수 벡터, $Z_g=0$ (자녀-부모 생활비 미지급) 또는 1(자녀-부모 생활비 지급), A와 B는 회귀계수 벡터)에서, A가 주효과를 B가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함.

*p<.05, **p<.01, ***p<.001, † p<0.10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유무에 따라 재무상태, 재무건전성,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 재무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독립계획 및 생활비 지급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30.25세이며, 77.6%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있고, 독립 예상 평균 연령은 32.93세로 주로 30대에 독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67.2%가 동거 중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60.3%였으며 평균 지급액은 연간 256.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등을 지급하는 비율은 10%이며,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27.07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지출상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평균 268.64만원,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131.89만원,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평균 63.25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부채 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 보유자(97.3%)의 보유액 평균은 4,548.45만원었고, 자산 중 예·적금의 보유 비율이 92.2%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보유액은 부동산 자산보유액의 평균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총부채

보유자(41.6%)의 보유액 평균은 2224.87만원이었고, 부채 중 신용카드 부채 보유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부채액은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 자산은 대출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의 부동산 자산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국내의 성인 자녀가 주거 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오호영, 2015)를 지지한다.

셋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건전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계 수지지표 평균값은 0.51이며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비율은 83.2%, 저축성향지표 평균은 0.24이며,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비율은 35.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채부담지표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비율은 77.6%, 금융자산비중지표 평균값은 0.82이며,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비율은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의 금융자산 구성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황금진, 2014)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지출 상태를 비교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원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전문·관리직이 유의하게 많았고, 월평균 저축 투자액은 대학원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사무직인 경우 유의하게 많았고, 자영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부채 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적금 보유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30대가 20대보다, 사무직이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보다 많았고, 고졸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펀드 보유액은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고, 기타 자산은 30대가 20대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 금융자산에 투자할 가능성

이 높으며, 30대가 20대에 비해 소득을 얻은 시기가 더 오래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그만큼 예·적금과 기타 자산보유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보유액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마련 대출은 30대가 20대에 비해 많았고,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이상인 경우 많았으며, 신용카드 부채는 농·축·어업 관련 종사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타 부채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30대는 20대에 비해 취업 시장에 오래 있었던 만큼 금융자산 외에 비금융자산에도 투자하는 등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남성은 여성보다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대출 및 할부거래 등의 재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자산비중지표는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30대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저축성향지표는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에서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대가 20대에 비해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직이 자영업에 비해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직업인만큼 예·적금 등의 안전 금융자산에 저축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관리직의 경우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자산보유액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모두 다양하게 투자하므로 저축성향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독립계획 여부와 자녀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상태 비교 결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적금 보유액, 신용카드 부채액,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여덟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

동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무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고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 전문·관리직과 자영업이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 수준은 고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재무행동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수입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전문·관리직의 경우 수입과 지출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사무직의 경우 신용과 부채관리 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이선행·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1998; 김호정, 2000; 김정현·최현자, 2012; 이지혜·주소현, 2013; 김아름, 2016).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용과 부채관리 수준,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홉째, 독립계획 여부와 자녀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행동을 비교한 결과,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립계획이 있는 자녀는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장·단기 재무 목표를 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재무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관리 행동과 위험관리 보험 행동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소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재무행동을 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재산상의 위험 등에 대비해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등 계획적 재무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인 경우, 독립계획이 있

는 경우,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총자산, 월평균 저축투자액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 직업별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사무직의 경우 월평균 저축투자액, 예·적금 보유액이 많고, 부채액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통해 수입과 지출, 신용과 부채, 저축과 투자관리 면에서 재무행동 수준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독립계획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주거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소비, 지출행동을 하고, 자신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므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이는 재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해당 결과는 개인 재무행동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Dulebohn & Murray, 2007; Engleberg, 2007), 총자산이 재무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이선형·이연숙, 1997; 임정빈 외, 1995; 1998; 김효정, 2000).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독립계획 여부와 생활비 지급 여부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계획에 의해 사무직과 자영업의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즉, 사무직과 자영업자의 재무행동 수준은 독립계획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독립계획이 있는 경우 이들의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생활비 지급 여부에 의해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보유한 경우의 재무행동 수준이 조절되었다.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이면서 자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되었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채를 보유한 집단의 재무행동 수준이 부(+)적으로 조절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 재무행동 수준은 생활비 지급 집단과 미지급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전형적 쉐어러족과는 달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집단의 재무 특성과 재무행동을 살펴보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집단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재무행태를 독립계획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여부 등에 따라 다각도로 이해하고, 이들의 현주소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자산부채 상태를 살펴본 결과, 부동산 자산보유액과 주택마련 대출액이 가장 많은 것을 토대로, 부모동거 20-30대 미혼 취업자는 주택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제도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가계수지표 평균은 0.51인 반면 저축성향지표의 평균은 0.24이다. 경제학적으로 가계수지표와 저축성향지표의 합은 1에 가까워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지출과 저축투자액을 조사함에 있어, 단일 문항으로 총합을 기입하였으므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30대 미혼 취업자들이 그만큼 본인의 지출액과 저축 및 투자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무행동 영역 중 수입과 지출 행동, 저축과 투자관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비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저축 및 투자 방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려는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근로소득이 있는 20-30대 청년층은 재무행동이 가장 활발하기 전 단계의 세대이므로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무 교육의 방향성은 앞으로

로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소득지출, 자산부채 상태, 재무건전성, 재무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재무 교육 측면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현 재무행태, 독립계획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당사자 스스로 관심을 갖거나 도움이 필요한 재무행동 영역을 살펴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무 지식이나 재무 교육 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재무 교육 영역이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재무 교육에 대한 꾸준한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독립계획이 있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추후 조사 대상자의 재무행동이나 금융거래 행동이 더욱 활발해질 때 향상된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올바른 재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재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장기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재무설계전문가와 재무교육전문가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세부적 재무행태를 알고, 이에 알맞은 재무설계 이슈와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생애주기와 연령대별로 나누어 재무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교육대상자들이 재무교육을 받을 당시 그들이 위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어 재무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무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재무교육 대상자가 20-30대 미혼 청년층이라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파악하고 더불어

어 독립계획 여부에 따라 이에 알맞은 재무상태 점검 방법과 재무계획을 달리 하는 등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독립계획 및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무행동 수준이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20-30대 청년층의 재무행동 향상을 위한 재무교육 진행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립계획 여부, 동거 시 생활비 지급 여부와 같이 재무상태 외에 교육 대상자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주변 상황 등을 선 조사하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의 구성 및 난이도 등을 달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부채를 보유하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집단은 미지급하는 집단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해당 집단은 수입과 지출관리 영역 외에도 부채관리 영역 등의 금융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대상의 범위와 구분이 연구자별로 상이하어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계획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른 재무행태, 재무행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세분화된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20-30대 미혼 취업자, 즉, 경제적 자립을 이룬 집단과의 재무행태를 비교·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이 동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의 명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룬 20-30대 미혼 취업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각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취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통일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심리적 특성이나 부모 특성 등을 활용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와 동거하는 20-30대 미혼 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제언점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 자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7(3), 387-403.
-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82, 87-103.
- 권재환·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고나경(2017).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상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금융투자협회(2011). 2010년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금융투자협회.
- 김누리·이정윤(2019).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29.
- 김민정·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성하·이병호·황선아(2016). 신캥거루족의 두얼굴: 우려와 기대, *이슈&진단*, 250, 1-25.
-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아름·양혜경(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김영순·고선강(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 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김유경(2018). 성인자녀 부양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9-98.
- 김은양(199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계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혜·여정성(2020). 쉐어러족 부모와 비쉐어러족 부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소비자학연구*, 31(1), 223-242.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42(1), 115-138.
- 김정현·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김정현·최현자(201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23(1), 229-254.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진영·이현정(2020).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험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1(3), 99-107.
- 김필숙·이윤석(2019).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미혼 여성의 결혼 이행: 취업 여부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0(4), 1-24.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6.
-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7), 79-91.
- 박주영·유소이(2017). 쉐어러족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및 재무적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6.
- 박주영·유소이(2018). 부모의존 독신성인 자녀를 둔 비은퇴자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평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57-77.
- 배미경(2006).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9(4), 123-139.
- 배미경(2007). 가계의 전반적 재무상태 측정 및 재무비율 영향요인 분석,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33, 67-81.
- 서지희(2010).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애·최연실·최새은·이재림(2017). 부모-미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동거 및 경제적

-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39-158.
-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손지연(2017).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 소득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0(4), 91-116.
- 송지현·정소희(2014).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37, 31-58.
- 신한은행(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 심재휘·이명희·김경근(2018). 누가 썬더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4(4), 29-53.
- 안승철·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지역발전연구*, 28, 73-97.
- 양세정·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 재무지표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 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5-183.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운봉·박현숙(2015). 국내가계의 재무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6(4), 67-99.
- 오호영(2015). 썬더족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오호영(2017). 썬더족 실태분석과 과제, *KLI 한국노동연구원 패널 워킹페이퍼*, 1-26.
- 윤종인(2016). 우리나라 가계 저축에 대한 코호트 분석, *한국재정학회*, 9(3), 35-69.

- 윤혜영·강지현(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7(2), 405-423.
- 이만우·김시광·김란영(201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립(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 청년기 가족형성, *통계개발원*, 70-78.
- 이선형·이연숙(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 1(2), 31-43.
- 이소영·김은정·박중서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숙·박성연(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4.
- 이승렬(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분·이용우·최희정·이화영(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1, 5-30.
-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이은희·김경자·이성림·유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이재경(2019). 부산 30대 싱글들의 마음과 삶: 결혼은 선택, 지금은 부모랑 사는 것이 더 좋다. 《동향과 전망》 106, 152-166.
- 이지혜·주소현(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 이필수(2014).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저축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

- 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필수·이용기·유동근·김승섭(2015).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 및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33(4), 113-124.
- 이현정(2015). 세대 간 가계자산 구성 및 주택자산의 투자 성향 분석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09-118.
- 이현주·강민희(2008).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3), 5-31.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임미리(2013). 에코부머세대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한 재무관리 효율화 제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돌·주소현·고은희·박원주(2018). 우리나라 세대별 재무만족도와 영향요인: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1), 91-122.
- 정운영·황덕순·홍은실(2002). 재무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재무관리체계모델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 정우진(2018).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현·김정현(2011). 세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태도 및 행동분석: N, X, 베이비부머, 전쟁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 123-146.
- 주소현·차경욱·김민정·김소연(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가계수지, 부채부담, 투자성향지표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1-38.
- 주소현·유명수·고은희(2020).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86세대의 금융상품 보유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13(2), 1-32.
- 조성호·스가 케이타·와타나베 유이치·시카타 마사토·김유경·김지민(2017). 청년층의

-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343.
- 조성호(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198-430.
- 차경욱(2007). 대학생의 재무행동 유형별 특성 및 재무지식 수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1-20.
-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가정과삶의질연구*, 75-89.
-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로 평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9(1), 43-54.
-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최형아·이화영(2013). 우리나라 ‘갱거루족’ 규모 및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허경욱(2017), 가계재무관리자의 성격, 가계재무행동이 가계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4), 55-76.
- 황금진(201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가계자산구조 및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1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2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2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저혼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층 분석 및 실거래가를 통해 본 주택의 변화, 보도자료.
- 머니S(2018, 3.12일자), [보통사람 보고서] ‘갱거루족’ 급증 30대 미혼 절반 부모와 생활, <http://moneys.nt.co.kr/news/mwView.php?no=2018031210218060874&outlink=1>
- American Savings Education Council(ASEC)(2008). Preparing for Their Future: A Look at the Financial State of Gen X and Gen Y.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Cognitive Social Theory. NY: Prentice Hall.

Bandura, A.(2001).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Berg, J. A.(2007). Subjective age identity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Social Thought & Research*, 28, 145-163.

Beutler, Ivan F. & Mason, Jerald W.(1987). Family Cash 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Journal*, 16(1), 3-12.

Crystal, S., & Shea, D.(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 227-247.

Di, Z., & Liu, X.(2006). The effects of housing push factors and rent expectations on household formation of young adult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8(2), 149-166.

Dulebohn, James H. & Brian Murray(2007). Retirement Savings Behavior of Higher Education Employe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8(5), 545-582.

Engelberg, Elisabeth(2007). The Perception of Self-Efficacy in Coping With Economic Risks Among Young Adults: An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1), 95-101.

Ermisch, J., & Di Salvo, P.(1997).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young people's household formation. *Economica*, 64(256), 627-644.

Fox, Jonathan J. & Suzanne Bartholomae(2008). "Financial Education and Program Evaluation," In J.J. Xiao(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p.47-68). New York: Springer-Verlag.

Furstenberg, Jr., F.(2013). Transitions to adulthood: What we can learn from the West. *The*

-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6(1), 28-41.
- Garman, E. T., & Fogue, R. E.(1991). *Personal Finance*, Boston, MA: Houghton Mifflin.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V. Langrehr.(Ed.), *Proceedings,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AFCPE.
- Greenwood, D. T., & Wolff, E. N.(1988). Relative wealth holdings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1962-1983. In J. L. Palmer, T. Smeeding, & B. B. Torrey (Eds.), *The Vulnerable*, 123-148.
- Haurin, R. J., Haurin, D. R., Hendershott, P. H., & Bourassa, S. C.(1997). Home or alone: The costs of independent living for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26(2), 135-152.
- Hurd, M. D.(1990). Research on the Elderly :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7.
- Joyce Serido et al(2010). Financial Parenting, financial coping behaviors and well-being of emerging adults, *Family Relations*, 59, 453-464.
- Joyce Serido, Veronica Deenanath(2016). Financial parenting_Promoting Financial Self-reliance of young consumers,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291-300.
- Lytton, Grable, & Klock(2006). The process of financial planning: Developing a financial plan. National Underwriter.
- Lown, Jean(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inanci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2(2), 54-63.
- Mason, J. W., & Griffith, R.(1988). New ratio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Spring, 71-87.
- Mulder, C.H., W.A. Clark, & M. Wagner(2006). Resources, Living Arrangements and

- First Union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etherlands and We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1), 3-35.
- Myria Watkins Allen et al(2007). Imagined interactions, family money management patterns and coalitions, and attitudes toward money and credit. *J Fam Economic Issues*, 28, 3-22.
- Pereira, M. C., & Coelho, F.(2013). Untang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ole of perceived income adequacy and borrowing constraints, *J Happiness Stud*, 14, 985-1005.
- Prochaska, James O, John C. Norcross, & Carlo C. DiClemente(1994). *Changing For Good*. New York: Avon Books, Inc.
- Poter, N. M., & Garman, E. 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2), 135-164.
- Radner, D. B.(1989). The wealth of the aged and nonaged, 1984. In R. E. Lipsey & H. S. Tice(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 52, 645-684.
- Radner, D. B.(1990).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 income-wealth measures,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2-14.
- Raymo, J.M., & H. Ono(2007). Coresidence with Parents, Women's Economic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8(5), 653-681.
- Scannell, E.(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133-146.
- Silva, J. M.(2012). Constructing adulthood in an age of uncertain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4), 505-522.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K.(1989). Net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Tokunaga, Howard(1993). The Use and Abuse of Consumer Credit: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2), 285–316.
- Vosloo, Wilmie, Jaco Fouché, & Jaco Barnard(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fficacy, Satisfaction with Remuneration and Personal Financial Well Being, *The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6), 1455–1470.
- Weaver, T. L., C. K. Sanders, C. L. Campbell, & M. Schnabel(2009).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Related Financial Issues Scale (DV-FI),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4), 569–585.
- Xiao, Jing Jian, Chuanyi Tang, Joyce Serido, & Soyeon Shim(2011).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Risky Credit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30(2), 239–245.
- Yu, W.H. & J.C.L. Kuo(2016). Explaining the Effect of Parent–child Coresidence on Marriage Formation: The Case of Japan, *Demography*, 53(5), 1283–1318.
- Zaimah, R., Masud, J., Haron, S. A., Othman, M., Awang, A. H., & Samila, M. D.(2013).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ratio analysis of married public sector workers in Malaysia, *Asian Social Science*, (9), 14.

ABSTRACT

Analysis of financial status and financial behavior of unmarried employees aged in 20s and 30s living with their parents

Park, Hye Jun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the number of unmarrie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is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such people by age group was 72.0% at the age of 20-24, 64.8% at the age of 25-29, 57.4% at the age of 30-34, and 50.3% at the age of 35-39, higher than that of unmarried men and women living alone at each age group (Statistics Korea, 2015). In addition, 86.9% of adults supported by their parents are single, of which 58.9% are employed which means that more than half of the unmarried subjects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employed (Kim Yoo-kyung, 2018).

Previous studies have coined the term "kangaroo people" to describe the

unmarried adults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y were often seen as people who have not properly made the transition into adulthood. The economic burden on parents due to such "kangaroo people" has been pointed out, socioeconomic causes such as employment insecurity, low wages, and rising housing costs have been discussed, and the focus was mainly on ways to promote their independence.

However, as the proportion of unmarried adults living with parents increases and the duration of dependent living increases, the so-called kangaroo types are diversifying. Among them, the group that participates in income activities differentiate from the group who involuntarily depend on their parents due to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ecu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economic independence of "kangaroo people" by considering not only their cohabitation but also various exchanges between them and their par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status,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behavior of unmarried employees in their 20s and 30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dependence plan, and living expenses paid to their par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financial behavior and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planning their independence and paying their living expenses. The following cor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Chi-square,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self-written surveys of 411 adult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with their parents who answered they are employe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unmarried employee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ge is 30.25, 77.6% plan to becom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and the expected average future age of when they will become independent is 32.93, mainly in their 30s. 67.2% of them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60.3% of them pay their parents for the living expenses(cash), and 10% of them receive money from their parents.

Second, findings on the asset debt status and financial soundness of the survey subjects are as follows. Among assets, the ratio of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was the highest at 92.2%, and among average asset holdings, real estate asset holdings were the highest. As for liabilities, the credit card debt holding ratio was the highest at 22.4%, and the average debt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debt for housing. The following are ratios of those meeting the standards for each financial ratio derived from examin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survey subjects. Household balance indicators 83.2%, savings propensity indicators 35.8%, financial asset share indicators 86.1%, and debt burden indicators 77.6%, indicating that the ratio of those meeting the standards for savings propensity indicators was relatively low. This shows that unmarried employee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not aware of the exact path and status of their expenditures, savings, and investments.

Third, the following are the core findings of analysis that compared financial status,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survey subjec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lan to

become independent, and contributions towards living expenses.

In terms of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omen had higher deposit and installment savings and financial asset share indicators than men, while men had higher stock, bond, and derivatives holdings and other liabilities than women. In addition, women had higher levels of credit and debt management behavior than men, and men had higher levels of financial environ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decision-making behavior than women. Through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prefer safe financial assets than men, and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pursue stable financial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actions such as paying back loans or credit card payments on time without overdue loan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men are likely to show financial behavior such as loans and installment transactions due to car purchases.

Regarding outcomes of different age groups, most of the asset liab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ir 30s than in their 20s, and the financial asset share index was higher in their 20s. As the age rises, people showed more variety of investment behaviors, such as investing in non-financial assets as well as financial assets, as those in their 30s have been in the job market longer than those in their 20s. A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are expected to become independent in their 30s(70.2%),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oportion of home mortgage loan is high in people in their 30s for their future financial independence and independent living.

In terms of education level, income expenditure(average monthly income, average monthly savings investment), asset liabilities(deposit, installment savings, funds, student loans, etc.) were mostly significantly higher, and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behavio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ost occupations, the level of income expenditure(average monthly income, average monthly savings investment), assets(deposit and installment savings holdings), and financial soundness(savings propensity index)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ase of specialized jobs and office jobs than that of other occupations.

The survey subjects with an independent plan showed higher level of financial environ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decision-making behavior and were more interested in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checked their financial situation more, and had financial goals.

The survey subjects who paid living expenses to their par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avings investment,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reserves, and showed higher income and expenditure management behavior,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behavior levels.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when they contribute towards living expenses, they are more likely to perform good financial actions such as managing their income and expenditure well and checking consumption expenditure details carefully. In addition, they show better financial behaviors, such as identifying one's financial situation and planning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property risks.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behavior of the survey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financial behavior was higher when they had office jobs, when the level of financial self-efficacy was high, and when the average monthly savings investment was high.

Finally, a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interaction terms was conducted

to verify that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behavior of the survey subjects was controlled by independent planning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tributions towards living expens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vel of financial behavior of offic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was affected by the independent plan. In other words, the level of financial behaviors of offic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independent plans. Their level of financial behavior is further strengthened when there is an independent plan.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level of financial behavior was affect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make contributions towards living expenses when the education level was graduate school or higher and when they had debt. In other words, in cases of people with graduate school or higher education level and people with debt, the level of financial behaviors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group paying living expenses and the group not paying living expenses.

In conclusion, as there has been a rise in the number of unmarried young people who are employed but living with their parents,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view on economic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by providing preliminary data on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exchanges with their parents, financial status,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behavior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economic independence. It is also expected to help identify their economic independence readiness and financial capabilities and help find ways to strengthen them.

없다.					
6. 나는 은퇴 이후에 돈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					

IV. 재무행동

1. 아래 문장을 읽고, 귀하의 재무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액수와 납부 시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2. 나는 금전출납부 혹은 가계부 등으로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한다.					
3. 나는 비상금을 준비해 두었다.					
4.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5.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6. 대출이나 신용카드 납부액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는다.					
7. 나는 저축이나 투자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찾아본다.					
8. 나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을 고려한다.					
9.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보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이다.					
10.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11. 리플렛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상품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12.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13.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재무 상황을 점검한다.					

14.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재무관리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기간에 따라 구분한 장단기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다.					
16. 5년 후, 10년 후, 내 재정 상태가 어떻게 생각해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V. 재무 특성

1. 귀하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적어주세요.

()만원

2. 귀하의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 식비, 의복구입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귀하의 일상 소비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과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모두 합한 총 연간 지출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적어주세요.

()만원

3. 귀하의 연간 저축 및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펀드, 주식 등 저축과 투자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어주세요.

()만원

4. 아래의 자산 유형별로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자산 유형			총 보유액
금융 자산	예·적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만원
	펀드	적립식·예치식 펀드	만원
	주식·채권·파생상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만원
부동산	주택, 주택 외의 부동산		만원

